

## 교계와 사회 함께 협력할 때 혁신의 일들 나와

### 교계 및 사회 지도자 2013 신년조찬기도회

새해를 맞아 남가주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다.

제 2회 남가주 교계 및 사회 지도자 2013 신년조찬기도회가 3일(목) 오전 7시 30분 옥스퍼드팰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 기도회는 한인커뮤니티단체장협의회(회장 변영의 목사) 주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유철 목사) 주관으로 열렸으며, 200여명의 남가주 인사들이 모여 예배와 합심기도로 한해를 시작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진유철牧사는 "남가주 단체장들이 먼저 본이 될 때 희망의 2013년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사명을 이루고 함께 협력할 때 혁신의 일들이 나온다.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 우리 모두에게 차별과 약함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를 철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영의 목사는 환영사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먼저 마음을 모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며 "올해는 한인 커뮤니티가 발전하고 동포들의 삶이 한결 여유를 찾는 해가 되길 소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년축사한 인사들도 2013년 한해는 희망이 가득차고 좋은 일들이



지난 3일 열린 제2회 남가주교계 및 사회 지도자 신년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일어나길 기원했다.

또한 이날 △교계 연합과 발전 △교포 사회 화합과 발전 △미국의 신앙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합심해 기도하기도 했다.

기도회는 사회 Brad Lee(한인커뮤니티단체장협의회 간사), 국민의례, 환영사 변영의 목사, 찬송, 기도 박영

집 장로(남가주교협 이사장), 특별한 양 정재혁, 그레이스 설, 우성영(나성순복음교회 솔리스트), 말씀 진유철 목사, 특별기도 인도 황의정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 김성민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 민경엽 목사(OC교협 회장), 귀빈소개, 신년축사 신영성 총영사(LA영사관), Eric Garcetti(LA시

의원), 배무한 회장(LA한인회), Tina Nieto(올림픽 경찰서 서장), 광고 양경선 목사(남가주교협 총무), 찬송, 축도 박희민 목사(성시화본부 대표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CBMC, 성시화운동본부, 남가주장로회, OC교협 등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토마스 맹 기자

## 나성영락교회 후임 토론토 출신 김경진 목사

### 공동의회 연 후 공식 청빙 의사 전달할 계획



김경진 목사

나성영락교회가 립형천 목사 담임 사임 이후 정확히 1년만에 4대 담임으로 김경진 목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1월 1일 립형천 목사는 동교회 주일예배에서 공식 사임 의사를 교인들에게 전했고 서울 잠심교

회로 청빙받았음을 알렸다.

이후 나성영락교회는 2대 담임목사이자 은퇴목사인 박희민 원로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해서 후임자를 물색해 왔다.

이번에 후임으로 내정된 김경진 목사는 현재 한국에서 익수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익수교회는 2011년에 개척된 교회이며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다.

김 목사는 토론토대학 공대를 졸업하고 토론토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와 신학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나성영락교회 청빙위원회는 "조만간 공동의회를 열고 전 교인들의 의사를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교회 교인들이 동의할 경우, 청빙위는 김 목사에게 청빙 의사를 전할 방침이다.

김준형 기자

## 남가주목사회 제46대 회장 이운영 목사 취임



김영대 이임회장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이·취임 예배가 3일 오전 10시 30분 한미장로교회(이운영 목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엔 교계 원로 및 인사들이 참석해 새롭게 맡을 올린 남가주목사회를 축하했다.

신임 회장 이운영 목사는 취임 인사에서 "올 한 해에는 사업과 행사 중심으로 목사회를 이끌지 않을 것"이라며 "교협과 협력해 도모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갈 것이다. 화목할 수 있고 효과있는 일들을 하기 원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정직하고 바르게 일하길 원한다. 한 해의 수고가 주의 일에 앞장서는 모든 목회자들의 기쁨과 자람의 결실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운영 신임회장

전임 회장 김영대 목사는 이임 인사에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1년을 돌아보면 보람과 기쁨이 있었고 아쉬움도 남지만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린다"고 말했다.

박희민 목사는 권면의 자리에서 "목사회가 교계 일치와 연합, 목회자 위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역할을 감당하면 한다"며 "지금은 안타깝게도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다. 미국 각성에 불을 붙이고 리더십을 발휘해 비전을 보여주는 목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예배는 사회 정종윤 목사(수석부회장), 기도 한기형 감독(나성동산교회), 성경봉독 이춘준 목사(부회장),

설교 '에스라의 개혁'을 제목으로 이운영 목사, 현금기도 서종운 목사(회계), 이임 인사, 취임 인사, 공로패 증정, 목사회 기 이양식, 권면, 축사, 격려사 이정근 목사(전 월드비전신학교 총장), 광고 광부한 목사(총무), 축도 김사무엘 목사(LA산돌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45대 목사회에서 수고한 직전회장 김영대 목사와 사모, 백지영 목사, 양석용 목사, 정종윤 목사에게 공로패가 증정됐다. 제46대 남가주한인목사회 임원진은 (호칭 생략) 회장 이운영, 수석부회장 정종윤, 부회장 백지영 강순영 강종민 고재원 김기동 김병룡 김삼선 김선국 김영석 김원락 김은목 김철 박만순 박병구 박은중 서요한 신종은 심명구 안광식 엄규웅 오유석 이성도 이완재 이우형 이철훈 이춘준 임의치, 총무 광부한, 서기 박성제, 회계 서종운, 감사 고주모 이흥현 목사 등이다.

토마스 맹 기자

**TAX 문제 전문 TAX HELP TEAM**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CLIENTS	RECENT CASES	RESULTS
K.Y.HWANG	IRS \$63,403.00	\$6,331.41 (\$100/mo)
C.P.RESTAURANT	BOE \$69,300.00	\$8,456.80 (\$500/mo)
N.D. INC.	EDD \$23,983.25	\$0
M. YIM	IRS \$137,22.49	\$200/month
K.Y.KWON	IRS \$44,471.46	\$0
T. HAN	IRS \$735,661.94	\$15,566.00

  
 3250 Wilshire Bl. Ste 900, L.A. CA 90010 Tel. 213-248-0221  
 1201 S. Beach Bl. Ste 106, La Habra, CA 90631 Tel. 562-943-1456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HAPPY NEWYEAR

# 코헨신학대학교

코헨신학대학교는 세계선교를 위해 설립된 신학교입니다. 특히 제3세계와 현지인들에게 신학교육을하며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을 훈련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리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수십년동안 엄청스럽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이 사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교단과 세계교회와 동문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 법인이사장 Dr. Merilline Cohen, D.D.
- 법인총장 Dr. Ronald Vandermey, Th.D., D.R.E.
- 부총장 Dr. Carol Spanier, Ph.D.
- 국제총장 Dr. Gary G Cohen, Th.D., Litt.D.
- 대학원장 Dr. William Stinde, Ph.D.
- 박사원장 Dr. Vance Vandermey, Th.D.
- 행정학감 Dr. Sarah Kim, Th.D., Ph.D.

17002 S. Prairie Ave., Suite 2000, Torrance, CA 90504  
 (T)1-424-257-8171, (F) 1-424-257-8136 E-Mail : cohenuiversity@hotmail.com

# “어항 속 금붕어 같은 목사? 머슴 목사야!”

## 에브리데이교회 최홍주 목사 인터뷰

늘 좋은 선교사에 목말라  
선교에 보다 심혈 기울일 것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내는 삶...

청바지에 티셔츠 한 장  
성도들에 편안하게 다가가고파  
스마트폰 시대, 심플한 로고

교회, 까딱하단 내 마음대로  
그러다 망해... 겸손이 미덕

목회자도 강단서 내려오면  
한 명의 크리스천

목회자에게 있어 강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이므로 가장 권위있는 자리다.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도 권위 있는 자리이며, 바로 그곳에서 존경받게 된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이 보는 권위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권위가 아니라, 땅에 끝없이 추락한 '권위' 혹은 '권위주의'라는 말로 대신하기도 한다. 이는 실사 목회자라고 해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진정한 권위를 자리가 아닌, 삶에서 찾자 부단히 힘쓰는 한 목회자가 있다. '머슴'이 자신의 목회 철학이라는, 에브리데이교회 최홍주 목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남가주 교계에서 웅변해선 그의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밖으로 안 다니기 때문이다. 오로지 선교와 교회 일에만 집중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성화(聖化)의 길을 가고자 하는 집념 때문이기도 할 터.

교회 부흥을 일으키기 어렵다는 벨리 지역에서 그는 혈혈단신으로 교회를 개척해 지역내 최대교회로 일궈냈다. 그런 그도 목회가 여전히 힘들다고 고백한다.

“지금까지 저를 써 주신 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오래 목회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욕심일 테고, 하나님이 저를 천국으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천국

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정년이 65세인 에브리데이교회 담임직을 은퇴하고 나면 바로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최 목사. 그래서 그는 그 흔한 영양제도 안 먹는다면 서 웃는다.

-교회 이름의 의미를 볼 때,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날마다 떡을 떼고 교제 나누었다고 했다. 제 목회 스타일은 될 수 있으면 목회 뉘새를 안내고 목회하자는 주이다.

알맹이는 보수적이지만, 생각 자체가 현실적이고 캐주얼한 걸 좋아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 안내책자를 보면 글은 거의 안 읽는다. 그래서 우린 백화점 카탈로그 같은 스타일로 하자 해서 사진 위주로 책자를 만들었다. 쉽고 편하게 다가가고 싶어서다.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권위도 있어야 하지만 좀더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은 바람이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왔으면 가운 입고 다니셨을까? 아마 캘리포니아라면 청바지에 티셔츠 한 장 입고 오셨을 거다.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우리교회 주보를 보면 한 장으로 돼 있고, 로고도 매우 간단하다. 조그마한 엠이 젊은 세대에게 더 친근하다. 그래서 이왕이면 스마트폰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앱 로고를 심플하게 바꿨다.”

-교회에 젊은층이 두터운 것으로 알고 있다. 교회 허리 역할을 하는 이들인데, 분위기는 어떠한가.

“젊은층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다. 교회의 역동성은 젊음에서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 어른들이 중요한 이유는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만큼 어른들에게 잘하는 교회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 1년에 한두 번씩 어른들을 위해 여행을 보내드리고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잘 모시고 있다. 그분들이 안정이 되고 교회를 편안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도 교회는 젊게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교회도 이에 맞게 변화돼야 하지 않나.

“우리 교회는 찬양사역자가 40세 넘으면 안세운다. 어르신들은 뒤에서 충분히 봉사할 수 있다. 어르신들이 잘못하면 추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젊게 가기 원하고 교역자들도 젊게 가려고 한다.

은퇴 연령이 65세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먼저 떠나도 좋다는 생각이다. 장로님들도 65세가 넘으면 다 은퇴하신다.

목회자가 연륜이 생겨서 더 깊은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교회 때문이라도 그만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교회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교회가 지금까지 굉장히 안정적인데, 앞으로는 조금 더 바깥쪽으로 눈을 돌려 선교에 집중하려 한다.”

-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어린이 양육단체인 컴패션, 우물사역을 하는 굿네이버스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컴패션을 굉장히 좋아한다. 좋은 선교단체더라. 실제로 가까이서 보고 '이거야말로 선교다' 해서 확 달려들었다. 첫째로 후원금 재정관리가 깨끗하고 투명하다.

두 번째는 양육이다. 사실 선교란 사람 키우는 것이다. 선교사들이 잘 하긴 하지만 그분들이 일선에서 물러나면 더이상 연결이 안된다는 것이 단점이다.

컴패션은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있다. 현재 교회에서 후원하는 아동들이 2000여명 정도 된다. 이들을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 지도자들로 키워내자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

또한 항상 좋은 선교사들에 목말라 있다. 그만큼 좋은 선교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현재 협력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하고 있는 것이니 든든하게 지원하려 한다.”



최홍주 목사

-최근 설교에서,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있다면 환경에 따라 쉽게 신앙이 좌지우지되고, 업 앤 다운이 심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위해 성도들이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이다. 지금까지 강해설교를 많이 해왔다. 창세기, 레위기 등 장과 구절을 빠지 않고 끝까지 한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필요하다.

정말 성숙한 성도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 직분을 막상 받았을 땐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다. 은퇴한 이후에야 알 수 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여전도회 회장 직분을 맡아 섬길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하면 아직 같일이 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 부단히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 내 목회 철학을 말하는 한 단어는 '머슴'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보통 벨리지역 하면 개척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그런 곳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승승장구 해왔고 현재 수 천명이 모인다. 까딱 잘못하면

목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망하는 거다. 그래서 머슴이고 싶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다는 거다.

목회하기가 참 쉽지 않다. 내 자신을 봐도 교회 처음 개척할 때와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소리(톤)가 작아졌다.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함이 없어졌다는 얘기다. 지금 좀 살 만하다고... 인간이 참 알팍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낮아지고 살고 싶다.

기독교의 하나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멘토가 없다는 거다. 불교에는 법정 스님이나 성철 스님 같은 깨끗한 이미지가 있고, 천주교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 사람들이 성당에 가는 이유가 그 속에 뭔가 경건함이 보이기 때문이다. 개신교 목회자들도 가운을 벗으면 좀 나을지 모르겠다. 강단에 설 때와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가 다른 것이 문제다.

그래서 평소에도 크리스천의 생활에 대해 많이 강조한다. 사실 목회자는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다. 성도님들과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뻘허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 그래서 아예 있는 그대로 내놓고 살기로 했다. 아닌 척 해도 다 드러난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사역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하지만 강단에서 내려오면 성도님들과 똑같다. 다를 게 없다.”  
토마스 멩가자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American Sports University 아메리칸 스포츠대학교

대한 신학대학교 스포츠학과에서는 선교지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태권도 골프 체조를 통해 사역을 할 수 있는 전문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학사과정 모집  
전공과목: 골프, 체조, 태권도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문의전화: 골프 310-598-0746  
체조, 태권도 323-608-1010
- 전문인 선교에 관심 있는 분  
■ 골프를 배우고 싶은 어린이(7~11세)환영 (픽업가능)

문의전화 :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주소 : 3128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를 유명한 한동규 박사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품으로 녹아나오지 않으면 암 치료 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 연락처: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213-252-9036

**미주성결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교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의 사람, 성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 되라!

★ 미주성결대학교/신학대학원의 특징 ★

- \*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 \* 부흥하는 기독교미주성결교회가 설립/운영하는 교단 신학대학
- \* 졸업 후 절차에 따라 남녀 목회자 안수하며, 선교사와 전문상담가 등으로 사역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및 ABHE 회원 가입 (Candidate Institution)
- \* 한국과 미국 어디서든 가능한 온라인 강의
- \* 성적과 자격에 따라 다양한 장학금
- \* 편리한 위치에 현대식 도서관과 휴게실 등 좋은 학습환경

학위과정  
학 부 : 신학사 (B.Th.)  
대학원 : 목회학 석사(M.Div.), 상담학 석사(M.C.C.), 선교학석사(M.M)

입학지원 절차

1. 기본자격 : 세례를 받은 자로서 중생의 체험과 소명감이 확고한 자
2. 원서접수 : 1월 20일 까지
3. 입학서류 : 본교 소정 양식 (웹참조)
4. 전형방법 : 1) 서류심사 2) 면접 (장학생 선발)
5. 개 강 : 1월 28일

**겨울학기 집중강의 (2013년 1월 7일~ 25일)**

총 장 : 류종길 명예총장 : 이정근 이사장 : 조종곤

Tel : 323-643-0301 / Fax : 323-643-0302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 www.aeui.org

# 효사랑선교회, 실버가정 상담실 개설

## 자녀들과 관계회복, 부부갈등, 황혼 이혼 문제 등 상담



효사랑선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실버가정 상담실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영찬 목사.

효사랑선교회(김영찬 목사)가 실버가정 상담실을 개설했다.

4일 김영찬 목사는 JI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아쉬움이 있다면 노인들을 위한 전문기관이 없다는 것”이라며 “미약하지만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작은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노인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드리며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데 힘써왔지만 정작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과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것이 부족했다. 노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상담실을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담실에서 이뤄지는 업무는 △자녀들과 관계회복을 위한 상담 △부부간의 갈등으로 황혼 이혼 문제 상

담 △황혼 재혼으로 인한 갈등을 행복한 부부관계로 회복 △이민과 소설업무를 돕는 시민권 교실 △서류 번역 및 통역업무 △건강한 삶을 위해 올바른 메디케어 상담 △유언서 작성과 인생의 행복한 마무리 교육 △신앙상담 등이 있다.

이곳에서의 상담은 현지 목회자들이 7명과 자격증을 취득한 상담사 3명(전문적인 분야) 등 총 10명이 진행한다. 시민권 교실은 시민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특별 강좌로, 강사는 시민권자 협회 전문 강사이며 등록비는 월 30불이다.

효사랑선교회는 2002년 8월 15일에 뉴욕에 위치한 First Baptist Church에서 설립돼, 지역사회에 효사랑 운동을 실천해왔다. 선교회는

10계명 중 하나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의 효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금껏 효 캠페인 운동을 펼치면서 불우한 독거노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섬기는 봉사를 해왔으며, 2년제 노인 효대학에서 2회 졸업생을 배출하기도 했다.

사역으로는 △효 캠페인(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전화로 인사하기, 생일 기억하고 파티하기) △효 글짓기 △효 장학회 △양로병원 사역 △찬양 율동교실 △실버가정 상담실 등이 있다.

▷주소: 7342 Orangethorpe Ave B 113, Buena park CA 90621  
▷문의: (714) 670-8004, (562) 833-5520

토마스 맹 기자

# 방주교회, 새해에도 온정 나누기 계속할 터

## 10일 LA한인회 인사들도 배식 돕는다



독거노인 초청 행복잔치 참석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역교회 구제행사에 힘써온 방주교회(김영규 목사)가 올해도 독거노인들께 온정을 전하는 '사랑의 무료 급식'행사를 이어간다.

2013년 첫 행사는 10일 정오 별문과 피코에 위치한 필그림교회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배무한 LA 한인회장과 이상훈 이사장도 참여해 배식을 돕는다.

사랑의 무료 급식행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방주교회가 매달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정기 자선 행사로, 한인 독거 노인들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물론 추

석 설날 크리스마스 등 명절이나 연휴에 맞춰 정성이 담긴 선물도 제공해 왔다.

방주교회는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리틀도쿄 갤러리 이몰 2층에서 독거노인 2백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담요를 나눠주기도 했다.

김영규 목사는 “외로운 노인을 포함한 한인사회 소외계층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앞으로도 나눔 캠페인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한나 기자

# 탈북신학교와 함께 하는 가정사역 컨퍼런스



탈북신학교에서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제3회 가정사역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컨퍼런스 당시 촬영한 행사 장면.

‘제3회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가정사역 컨퍼런스’가 18~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목회자, 선교사, 사모, 상담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탈북신학교 비즈니스 빌딩에서다.

이 세미나에서는 자살, 동반자, 우울증, 인격장애, 한인목회자 가정의 진단과 처방 등을 주제로, 이 분야의 선구자이자 이 학교 원로교수인 노만 라이트 박사가 강사로 나선다.

올해로 75세를 맞이한 라이트 박사는 가정사역 개척자로서 장애 아들과 사별, 사랑하던 아내의 투병과 사별, 그리고 재혼을 거친 인생 전체

의 경험을 전한다. 통역은 구혜선 전도사가 맡는다.

또 탈북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교수이며 임상심리학자인 쉰 씨 송 박사가 동반자론 및 인격장애에 대해 강의한다.

이밖에 탈북신학교에 20여년간 교수로 재직해온 벤 신 교수가 목회자의 가정과 사역에서의 탈진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컨퍼런스 등록마감은 15일까지이며, 신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이 주어진다. 이수 후에는 수료증이 주어진다.

▷ 문의: (213) 514-4001

토마스 맹 기자

# 은혜한인교회, 신년벽두부터 기도 열기 더해가

## 신년 21 다니엘 특별 기도성회 22일까지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가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신년 21 다니엘 특별 기도성회’를 열고 있다.

이 교회는 올해 표어를 ‘믿음의 영적 거장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로 정하고 2013년을 맞이했다. 교회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시작된 100일 특별 작정기도회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영적 회복과 교회의 예배회복, 가정의 기도응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왔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다’라는 주제로 시작된 기도운동은 새해를 맞이해 ‘신년 21 다니엘 특별

기도성회’로 명명하고 100일기도회가 끝나는 22일까지 매일 오후 8시에 비전센터 본당에서 연다.

한기홍 목사는 2013년도를 맞아, 기도 함으로써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목사는 2일에 “앞으로 21일간 매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을 통해 어떻게 영적 거장이 되었으며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롤 모델로 삼고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자”며 “2013년도 은혜한인교회 표어대로 믿음의 영적 거장이 되

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자는 데에 집회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말 100일 특별 집회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 집회를 열고 있는 은혜교회는 이 땅에서 미국을 깨우고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열정을 쏟고 있다.

교회 측은 “특별히 이번 성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집회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의 열기를 더해가고 있으며,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집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는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이사의 명가 삼성통운**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약도: Bus Stop, Lajolla, Fairfax, ORT, 맥도널드, Wilshire

# 테너 김준만과 함께 하는 신년음악회

## 태국 및 미얀마 불우아동돕기 일환



테너 김준만 씨.

한국이 낳은 유럽 정상의 현역 오페라 가수, 테너 김준만 씨가 신년을 맞아 자선음악회 '축복의 소나기'를 연다. 오는 27일 오후 4시 타운에 위치한 갈보리민음교회(3300 Wilshire Blvd., LA)에서다.

테너 김준만 씨는 그간 유럽을 중심으로 1200여 무대에서 폭발적인 파워와 풍부한 감성을 소유한 오페라 가수로 명성을 떨쳐 왔다. 오직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올인하는 그에게, 깊은 골짜기같은 영성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엘리아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테너' 등의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이번 음악회는 태국을 비롯해 미얀마, 캄보디아 등지의 결식아동, 장애아동, 전쟁고아들을 돕기 위한 목적

으로 열리며, 테너 김준만 씨 외에도 페라 가수, 테너 김준만 씨가 신년을 맞아 자선음악회 '축복의 소나기'를 연다. 오는 27일 오후 4시 타운에 위치한 갈보리민음교회(3300 Wilshire Blvd., LA)에서다.

KBS 및 중앙공중에서 1위를 수상한 소프라노 최정원 씨와 LA 오페라 주역가수인 소프라노 샤나 블레이크 힐, 매력적인 목소리의 소유자인 소프라노 황경희 씨, 그리고 리릭 소프라노 샤론 김 씨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밖에도 은퇴한 미국인 뮤지션들이 모여 만든 '해피 재즈 밴드'도 출연해 버라이어티하면서도 멋진 공연을 연출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피아노 반주는 클래식 전문가로 잘 알려진 진정우 박사가 맡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오페라 아리아 Addio Fiori Toasil', '카르멘의 Habanera',

라보엠의 Quando me'n vo,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All I Ask of You' 등 주옥같은 곡들을 선보인다.

김 씨는 "이번 음악회가 이민 생활에 지친 미주 교포들이 위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재미와 웃음, 감동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멋진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많은 한인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전화 (818) 395-2031로 하면 된다.

한편, 동남아 일대를 중심으로 한 불우아동돕기는 비단 이번 음악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김 씨는 현재 태국 파타야에 아시아선교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는데, 앞으로 이를 중심으로 구제 사역, 복음 전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면적 4천평 규모의 이 선교센터는 완공까지 앞으로 2년 남짓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르면, 리조트 스타일로 지어질 이 건물은 수백명에서 수천여명에 이르는 선교사 및 평신도를 수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꾸며지게 된다.

센터 완공 뒤에는 태국 현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김기병 목사(에덴선교회)가 중점적으로 인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파 활동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참고로 여기에 필요한 재정은 김 씨가 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텔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전액 충족하게 된다.

김 씨는 "예전부터 하나님을 위해,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내 소원이었다"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한나 기자

# 영원을 향하여

## 임마누엘복음선교회 대표 구기조 목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가는 동안에 한 번 감았다 떠보니 나의 인생 길이 저물어가네. 상가의 개처럼 바쁘게 살았네.

희망에 불타서 새벽에 떠났으나 벌써 해는 기울어지고 추위가 느껴지네. 인간의 생사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일러주셨네. 우리 시조의 범죄로 인해 에덴을 떠난 후 사람이 한번 죽고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 하셨네.

사람의 힘으로 다 되면 왜 기도하라고 하셨으며 사람의 능력으로 죄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믿으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이 예언하셨으나 죽는 것은 믿어지나 부활은 못 믿고 근심하고 있었네. 제자들이 그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흥분과 환희는 하늘에 닿았을 것이네. 그들이 믿건 안 믿건 주님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셨네.

세상의 유랑에서 하늘 본향으로 잠시 시의 곳에서 영원으로 안내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네. 소망을 잃고 그늘진 모습의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셨네. 소망 없이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일어날 힘을 잃은 제자들에게, 슬픔에 젖어 설움 이 복받쳐 주저앉은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속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 속에서 정복자의 발걸음으로 걸어 나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네.

장래가 보장된 행복이 참 행복이며 장래가 보장되지 아니한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들고 달려 왔노라. 나는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만이 복음이며 예수님만이 길임을 나의 생이 이 땅에서 다하는 날까지 전하다 주 앞에 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증언하는 바네.

사람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생이 마감될지 모르고 살기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날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네. 911 테러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날 순식간에 피 끓는 젊은 청년 남녀 3000명의 생명이 사라진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사람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죽어가는 것을 볼 때 1년을 위해서는 곡식을 심고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심고 영원을 위해서는 복음을 심으라는 말이 새삼 실감이 나네.

영원을 위한 복음이 이렇게 소중한기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잃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들에게 세월이 지나면 퇴색하는 세상의 별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별을 약속하셨네.

# 한의사 선교사들 모임 '가마' 비전선포식 열려

GAMA(Global Asian Medicine Association, 이하 가마) 비전 선포식이 5일 His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가마는 선교에 열심이 있는 한의사들을 섬기는 단체로, 세계선교의 최전방을 담당하는 선교사가 배출되도록 의료와 영성 부분과 관련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비전 선포식, 3부 한의학 임상 특강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가마 호주대표 송영근 선교사는 "미국에 올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선교사들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으로 오게 됐다"며 "연약한 한의사

들이자 선교사들이지만 우리를 통해 은혜를 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2부 비전 선포식에서 가마 미국 대표 전은상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향한 거대한 꿈을 갖고 계신다"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목표의 수치를 밝히기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앞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실현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1부 예배에서는 박한상 선교사(가마 사무총장)가 설교했다.

토마스 맹 기자

# 남가주중부교회협 신년하례식, 사명 감당할 것 다짐해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회장 곽소건 목사) 신년하례식이 7일(월) 오전 알테시아에 위치한 알테시아세리토스감리교회(이석부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곽소건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신년 감사예배는 부회장 허귀암 목사의 기도와 남가주목사회 직전회장 김영대 목사의 '주님과 동행하는 일년'이라는 제목의 설교에 이어 회장 곽소건 목사가 신년사를 전했다.

곽소건 목사는 "새해에는 초교과적으로 140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중부교회협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화합과 일치를 보이며, 지역 사회를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물결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세상이 되는데 초석을 다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예배 후 진행된 신년인사와 덕담 나누기, 윗놀이, 점심시간을 통해 참석자 모두가 하나로 어울려 교제를

나누며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는 에너하임, 알테시아, 벨플라워, 부에나파크, 세리토스, 사이프레스, 다운니, 라하브라, 라미라다, 라팔마,레이크우드, 놀월, 산타페스프링스, 사우스게이트, 스탠턴, 웨스트민스터, 위티어 등 17개 지역의 140여 교회가 회원으로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이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감기약 처방  
한약으로 한방에 감기 뚫  
증상별 처방/천연 한약제  
3-7일분 처방 가능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여행자 보험 / 건강보험/교통신용 (스마트폰 검색가능)

**인디안 알로에 베라** 신제품 알로에-베라 블루퀀트 로션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당뇨병, 간기능 강화, 화상피부에 효능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방지 보습기능 유아들의 민감성 피부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 ATS 인준 셰퍼드 대학교 신학대학만이 드리는 미래를 위한 높은수준의 편안한 교육

주님을 위한, 세계를 향한 For the Lord, To the World!!

셰퍼드대학교 신학대학의 사명은 훌륭한 기독교 고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탁월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한국계 학교로 시작하여 미 주류 종합대학으로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셰퍼드와 여러분의 성장을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1 미래**
  - 미군 군교 장교 진출
  - 미 주요교단 안수가능
- 2 높은수준**
  - ATS 인준 (Candidacy)목회학석사, 목회학박사과정 및 신학 학사 프로그램
  - 세계 최고의 영적 리더십을 통한 교육
- 3 편안한 교육**
  - 다양한 장학혜택과 저렴한 학비
  - 영어강의 / 통역강의

**이제 세계적 명성의 신학자들과 더불어 자신있게 공부하십시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박사**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생명의 운동의 주체이자 20여개의 성경적 제자훈련의 창시자이다. 영성과 교회 성장, 제자 훈련을 주제로 전 세계에 나가 리더십을 발휘하며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이며 그의 책 '제자훈련-1'과 '2'가 출판 이후 세계적 베스트 셀러가 되었고, 그 외 20여권의 책이 한국어로 출판되었으며 현재 셰퍼드 신학 대학에서 영성, 교회성장, 제자도 분야에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다.

**찰스 크레프트 박사**

영적 전쟁과 내적 자유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지난 수 십년간 미국은 물론 한국, 호주, 독일, 스위스, 태국, 대만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내적 자유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저서로는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 '사탄의 영을 대항하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능력 기독교' 등이 한국어로 출판,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 셰퍼드 신학대학에서 내적자유를 강의 하고 있다.

**에드 실보소 박사**

Harvest Evangelism의 설립자이자 회장으로서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 선교 전략가이다. 그는 피터 와그너, 잭 웨이브로, 빌 브라이트 박사들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지도를 받고 있다. 그의 모국어는 세계 60여 도시에서 도시 및 기업전체를 전도와 선교의 차원에서 모회 사역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저서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길', '기도전도', '사업의 기쁨', '변혁의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SHEPHERD UNIVERSITY**  
3200 N. San Fernando Rd., Los Angeles, CA 90065 / info@shepherduniversity.edu / www.shepherduniversity.edu

SEVIS I-20 발행 **상담 및 입학문의 323-550-8888**

# 기뻐하며 삽시다

##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납니다. 울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태어나서 울지 않으면 두 발목을 잡고 거꾸로 세워 엉덩이를 두들겨서라도 울려서 인생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것을 고고의 성(呱呱의聲, Cry at its birth)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신앙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데 왜 근심, 걱정, 시험, 환란이 끊이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통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기뻐하라는 전제 다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 하라는 서술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왜 그 기쁨이 있는가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고통이 있으면 왜 고통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와 원인과 결과에 따른 책임을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간성으로 하면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영적 교감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대화로 이어지며 영감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며 또 내 사정을 직고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내게 유익한 교훈을 얻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도 않으려 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도 의지도 없으며 기도도 하지 않고 막연한 종교 의식에만,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고 보살피 주시리라 믿어 버립니다. 결국 미신적 기대감은 매우 엄청난 절망을 결과로 가져오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자기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내가 직접 부딪히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전회위복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관계가 온전히 연합할 것이며 내 입장이 예수님 입장으로 살고 있는 한 예수님이 내 입장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내 입장과 주장하며 항상 예수님께 실망만 안겨 드려서 말씀에 거역하고 어긋나게 살며 내 입장이 억울한 것처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잘 정립된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믿음은 개떡 같으면서 하나님께 찰떡을 달라고 하면서 교회만 들락거리는 사람 찰떡을 먹지 못할 때 실망만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신앙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 소록도에서 만난 예수님

‘소록도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전도용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명

륜동의 유교적 전통의 가문에서 유교의식의 양반으로 자라다가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여 검사가 되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땡땡거리며 자기생각대로 행동하고 똑똑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았고 그는 고검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엉덩이 있는 쪽 넓적다리 부분에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약을 바르고 치료를 했는데 점점 살은 썩어 들어갔습니다. 고대 병원에 갔더니 한센인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서울대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여기저기서 부풀어서 썩어 들어가며 몸에서는 송장 썩는 악취까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검장도 사표를 내고 멀리 강원도에 있는 친척 집에서 치료를 받으려 하는데 친척도 거절합니다. 그때부터 자존심은 꺾이기 시작하고 대단한 위세를 부리던 때도 있었는데 가까운 친척에게도 거절당하고 점점 설 자리는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8개월 뒤 할 수 없이 시립병원을 통하여 소록도에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가서 보니 자신보다 더 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는 거기서 더욱 더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져 ‘내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하는 실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견디기 어려워 자살하려고 바다에 뛰어들기도 했으나 파도물이 밀어내 죽지도 않았습니다. 손가락도 마디가 부르며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밥도 먹기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날 그는 비로소 자신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보다 더 험악하게 된 한센인들이 다가와서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마다 전해지는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언젠가부터 가슴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리다 통곡이 터지고 한센인 손으로 마룻바닥을 치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지내기를 6개월 정도 하였습니다.

어느새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육신은 세상에서 망가졌지만 남은 영혼은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에 영적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나는 내 영혼을 무시하고 짓밟고 함부로 했던 날들을 생각하며 잘못 살았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의 가슴은 뜨거워졌고 삶의 의욕이 복받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몸은 썩어 들어가지만 아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당장 그날부터 약하고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손발 노릇을 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길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세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병을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만약 한센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지옥에 갔을 것을 생각할 때 소스라치게 떨리는 마음을 느끼며, 영적 소망

의 확신과 믿어지는 믿음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전도용 책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고등검찰에 앉아 부하 검사의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일을 하면서 정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억울한 사람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가두고 못된 짓만 하다가 지옥 갈 뻔 했는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차피 썩어서 흙이 될 몸을 예수님이 소록도에서 만나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으셨습니까? 내세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그때 그병, 그문제, 그과정이 없었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손목이 잘려 나갈 때 그는 다른 이들의 머리로 빗겨주고 밥도 먹여주고 먹여주다 흘러는 밥을 왼손으로 집어먹으며 사랑의 교제를 이뤄 나갔습니다. 만약 옛날 검사장으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었겠지요?

###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서 잘못된 죄 값의 결과라면 회개하여 용서를 통해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려나 하고 회개 아닐까 잘못없이 당하는 환란이라면 연단하여 더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함이기에 소망과 기대감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은 편도선이 자주 붓고 염증이 나서 목이 탕탕하여 침도 못 넘어 가고 여러 날 고생하다가 한 국 병원에 가서 수술하여 계란 덩어리만한 것을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이따금 쉼~ 하는 쇠소리도 나고 찬송도 안 되고 사역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생을 바치고 싶었는데 자기 몸을 혹사하며 사명을 감당했는데 자주 편도선이 방해가 되어서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에게 편도선 자체를 아예 뽑아 없애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말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것인데 하나님께 허락도 안 받고 누구 맘대로 없앨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도선을 앗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라고 생각해 주지만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의사는 목사님의 몸은 목사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전혀 돌보지 않고 밤낮없이 편도선에 공공 앞도록 과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 관리를 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매로 이루어 드려야지, 관리 잘못하는 책임이 목사님에게도 있다는 지적을 해주며 수술을 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목에 건강 청진기를 달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목에 염증이 시작될 때는 과로해서 쉬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쉬고, 또 병이 다 나오면 이제 쉬었으니 열심히 일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장로님이신 의사에게 귀한 것을 배웠고,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각오는 좋았으나 그런 일을 겪으면서 되려 편도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관리를 잘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근심, 부담을 원망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신자는 기도하며 잘 활용하여 오히려 전회위복의 기회로 간증거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통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두려워 말고 낙심도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 해결 받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보여주시는지를 확인하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우리의 삶을 언제나 그리스도와 의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 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후 2시 30분	미국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11시 50분		미국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애장경총회 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p><b>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b>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안수기념)        I-20발행 및 각종 정착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p><b>FULLER THEOLOGICAL SEMINARY</b>  <b>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b></p> <p>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b>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b>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p> <p>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jruniv.org</p>	<p><b>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b>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ox K20 발행/ 선교사 정착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b>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b>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p> <p>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p>	<p><b>솔로몬 대학교</b>        영광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B.A., M.Div.,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총장: 백지영 목사 부총장: Dr. Brent Price</p> <p>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b>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b>        laps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믿음을 양성</p> <p>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p>	<p><b>미주대한신학대학</b>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b>코헨대학교 &amp; 신학대학원</b>        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7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Fax. 310-793-2297        www.cohenuniversity.ac</p>	<p><b>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b>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b>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b>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병희 목사 &amp; 교수</p> <p>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p>	<p><b>미주성결대학교</b>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p> <p>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ji.org</p>

# 제 38대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취임 감사 예배

취임회장 **홍순헌 장로**

일시 : 2013년 1월 20일(일) 오후 5시

장소 : **시온성결교회**(담임 최경환 목사)  
2149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18

문의 : 213) 304 - 9191

## 단신 및 동정

### 인랜드 장애인 토요일학교 개설

LA 동부 포모나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인랜드 장애인 토요일학교(교장 홍성원 목사)'가 새해를 맞아 지난 5일 문을 열었다. 프로그램은 독립 생활 훈련, 사회적 훈련, 한글교육, 영어교육, 뮤직 테라피, 아트, 악기, 운동, 점자 등으로 구성되며, 현재 자체 수어교실과 수어잔양단을 운영중에 있다.

이밖에도 학부모를 위한 장애인 전문 카운슬러, 자녀를 위한 주정부 직업 재활국 카운슬러가 직접 상담을 통해 직업 재활을 돕는다.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포모나 인랜드교회(1101 N. Glen Ave)에서 열린다. ▶문의: (909) 622-2324

### 남가주 연목회, 신년하례회 및 총회 개최

남가주 연세동문목회자회(회장 정요한 목사, 이하 연목회)가 13일(주

일) 오후 6시 한인타운에 위치한 로텍스호텔에서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현재 남가주 일원 연목회 회원은 60여명이 있다. 이날 모임에 대해, 연목회는 부부동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의: (213) 422-9191

### 미주 TEE 지도자 세미나 개최

미주 TEE(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가 주최하는 '지도자 세미나'가 10~11일(오전 9시30분~오후 5시20분) 풀러턴에 위치한 TEE 세미나실(251 Imperial Hwy #420)에서 개최된다. 강사로는 한순진 목사(KTEE), 김일경 목사(평화교회), 임홍일 목사(비전선교회) 등이 나선다. 참가비는 100불. ▶문의: (714) 350-4211

### 아기 잘 키우기 학교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해 아기 교육

을 담당하는 '아기사랑 요게벳'이 '제2기 아기 잘키우기 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2월 9일~3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다. >아기사랑반(신생아 부모, 아기 부모, 임산부) >요게벳반(손자와 손녀 돌보는 조부모) >베이비교사반(베이비시터) 등으로 나뉜다. 장소는 모닝그레이크 교회(14762 Jackson St Midway City) ▶문의: (714) 766-9274

### 세계의료선교회, 무료 건강검진

세계의료선교회(김인철 목사)가 무료 건강검진을 개최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30분~11시 30분 그라나다 힐스 지역에 위치한 벨리한국장로교회(16603 San Fernando Mission Blvd)에서다. 건강 상담은 물론 혈액검사, 흉터검사 등 다양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818) 621-4256

## 기독교일보 2013년 시무예배 드려

### 강신권 목사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 은혜 전하는 신문 되길"



강신권 목사

2013년 새해 기독교일보 임직원 시무예배가 4일 오전 11시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본사에서 드려졌다. 시무예배에서는 이인규 사장의 사회 하에, 강

신권 목사(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비전153 글로벌 미션총재)가 설교를 전했다.

히브리 사과의 성경해석의 대가로 잘 알려진 강 목사는, 이날 창세기 4장을 본문으로 원어적 해석에 입각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담긴 메시지를 전하면서 새해를 맞아 본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구체적인 지침 등을 권면했다.

특히 "창세기 3장 마지막 절과 4장 1절 사이에는 접속사 '그리고'(and=히브리어 '와우')가 들어가 있는데, 이는 연대적으로 앞 뒤 구절과의 연속 선상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인류의 타락 사건에도 불구하고 가족 옷을 입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와우'라는 다리 위에 서서 4장의 말씀을 봐야 한다"고 풀이했다. 여기서 "가족 옷이란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침착기를 상징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의미와 차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분석했다. 가령 "가인이 드렸던 '제물'이란 단어가 원어에는 단수로 기록돼 있는 반면, 아벨이 드렸던 '제물'은 복수로 기록돼 있다"면서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보답해 드리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구절을 보면, 주어가 하와로 돼 있는 반면,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음을 볼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이 '나'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어와 바뀐 세상을 이기는 임직원들이 다 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강 목사는 예배 이후 사무실 곳곳을 둘러보고 격려하며 축복한 뒤 임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정한나 기자

## 황수관 박사 떠났지만, 훈훈한 미담은 계속

### 인터넷에 추모글과 이미지 등 확산 중

세상에 유쾌한 바이러스를 퍼뜨렸던 '웃음 전도사' 황수관 박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지만, 여전히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와 인터넷상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글과 이미지, 영상들이 빠르게 확산돼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퍼지고 있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던 가난한 소년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미지는 어린 황수관이 의대 교수가 되기까지의 입지전적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 이미지는 '판타(Fanta)'라는 니네임을 사용하는 네티즌이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파일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북) 경주 근처 안강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학교에 다닐 돈이 없었다. 학비를 벌기 위해 1년 동안 산에서 나무를 해 적으나마 학비를 준비했다.

그러다 포항에 가면 공짜로 공부하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소년은 세 시간이나 걸어서 학교에 갔다. 하지만 교장(선생님)은 '너무 머니 포기하라'고 했다. 소년은 끝까지 우기고 애원해 입학할 수 있었다. 그 후 매일 오전 4시에 책 보따리를 짊어지고 먼 길을 통학했다.

고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한 소년은

사범대학에 입학해 잠시 교사 생활을 하다 더 큰 꿈을 품고 (대구대)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다 의학에 관심이 생겨 의대 청강생으로 들어갔다.

의대 교수들은 그에게 온갖 수모를 줬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중간고사 때 시험지를 주지 않자 '나도 한 장 달라'며 항의하는 뻔뻔함도 있었다.

그리고 의대생들보다 더 훌륭한 답을 써서 교수들을 놀라게 했다. 그렇게 고인은 10년 동안 의학 수업을 청강했다. 졸업장도 못 받는 수업을 10년이나 청강했던 것이다. 그리고 의대 졸업장도 없이 연세대 의대 교수 공개채용에 지원했다. 마침내 유학과 출신, 명문대 의대 졸업생 등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실력으로 연세대 의대 교수가 됐다.

우리는 그를 신바람 박사 황수관이라 부른다."

누리꾼들은 이 이미지를 보고, 항상 웃던 그의 모습 뒤에 이런 모습이 있는 줄 몰랐으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황수관 박사가 출연한 종편(종편합성채널) 방송의 강의를 '황수관 박사 이별 강의'라는 검색어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방송에서, 황 박사는 이 세상



고 황수관 박사

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Mother'라고 고백했다. 이어 황 박사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랑과 모성애'를 강의해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는 어린 시절 흥역을 알아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독했지만, 썩은 고름도 개이지 않고 자신의 얼굴과 목에 생긴 종기를 밤새 닦아내던 어머니를 회상했다.

아울러 황 박사는 북한 기아 어린이 돕기와 동남아시아 쓰나미, 미국 허리케인, 아이티 지진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성금을 기탁한 것으로 밝혀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온 고인의 삶을 돌아보게 했다.

이동윤 기자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사업체 비영리단체 설립 해산 및 장부정리(Quickbook)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방법
- 크레딧카드 및 부동산관련 세금문제해결(1099-C)
- 저소득층 세금환급(ETTC)
- Payroll & Sales Tax 보고(Paycheck service)
- IRS, SBOE, EDD, FTB 세금문제해결(Levy & OIC)
- ITIN(개인 납세번호)신청 및 공증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이정은 CPA**

Tel (213)387-2004

Email상담환영 :  
chungleecpa@hotmail.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2013 신년부흥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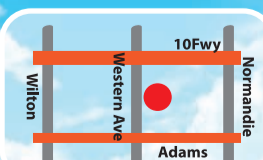
#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강사 : **심원용 목사**  
(부천 삼광교회)

- 25일(금) 저녁 7:30 : 신령한 복을 받아라 (엡1:3)
- 26일(토) 새벽 6:20 :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엡3:13)
- 26일(토) 저녁 7:30 :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엡5:18)
- 27일(주) 오전 11시 : 그리스도인의 3가지 삶 (림후2:1-7)

장소: 갈릴리교회  
주소: 2212 S. Western Ave.  
LA., CA 90018  
전화: 323-735-6412  
www.gmcchurch.com



미주한인이민 110주년

미주한인재단 전국 대회

미주한인이민 110주년 기념 및 2013미주한인의 날 기념행사

2013 Korean American Foundation National Convention

The 11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Immigration to the USA & The 10th Anniversary of Korean American Day Celebration

미주한인이민 110주년 기념 및 2013미주한인의 날 기념행사 일정

2013년은 미주한인이민 110주년이고 미주한인의 날 제정 10주년의 해입니다. 미주한인이민 역사를 바탕으로 2004년 1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매년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제정결의하여 선포하였고, 미연방 의회 상하원은 2005년 12월에 미주한인의 날 (Korean American Day)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미국의 국가 기념일로 법제화 하였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행복과 풍요가 넘치는 아름다운 나라로 발전되기를 우리 모두 소원합니다.



설교 소강석 목사 (새에덴 교회 당회장)



축하메세지 황우연 (새누리당 대표)



한국대표 김영진 장관 (전 농림부 장관)

1 1월 7일 (월요일) 14:00 캘리포니아 주의회 선포식 (Sacramento) 장 소 State Capitol, Sacramento, CA94249 15:30 제8대 전국 총회장 취임 및 전국 임시총회 장 소 주청사 소회의실

7 1월 13일 (일요일) 18:30 연합감사예배와 대합창제 (회중교회) (First Congressional Church) 장 소 540 S. Commonwealth Ave., LA, CA90020

2 1월 8일 (화요일) 17:00 Irvine 시의회 선포식 장 소 One Civic Center Plaza, Irvine, CA92623 17:00 Buena Park 시의회 선포식 장 소 6650 Beach Bl., Buena Park, CA90622

8 1월 14일 (월요일) 9:30 굿 사마리탄 병원 헌기식 장 소 1225 Wilshire Bl., LA, CA 90010 11:00 월턴 플레이스 초등학교 헌기식 및 차세대 세미나 장 소 745 S. Wilton Pl., LA, CA 90005 18:00 미주한인이민 110주년 기념 만찬 장 소 제이 제이 그랜드 호텔 (620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05)

3 1월 9일 (수요일) 10:00 남가주 윌셔 초등학교 헌기식 및 차세대 세미나 장 소 4900 Wilshire Bl., LA, CA90010 미주한인이민 110주년 기념 15:00 33인 작가전 개막식 (Gallery Western) 장 소 210 N. Western Ave., LA, CA90004

9 1월 15일 (화요일) 19:00 La Palma 시의회 선포식 장 소 7822 Walker St., La Palma, CA90623

4 1월 10일 (목요일) 10:00 LA 한인회 헌기식 장 소 981 S. Western Ave., LA, CA90006

10 1월 17일 (목요일) 19:00 Crescenta Valley Town Council 시의회 장 소 2809 Foothill Bl., La Crescenta, CA 91214

5 1월 11일 (금요일) 10:00 LA시의회 선포식 장 소 200 N. Spring St., LA, CA90012

11 1월 22일 (화요일) 18:00 Glendale시의회 선포식 장 소 613 Broadway, Glendale, CA91206

6 1월 12일 (토요일) 16:00 2013미주한인의 날 미술대회 시상식 장 소 680 Wilshire Pl. 1st Floor, LA, CA (LA한국 교육원)

★ 상기 모든 일정은 추후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행사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TAX ID : 20-2356362/ 501(c)3 행사 문의전화 : 213.784.2075



주최 : 미주한인재단-USA (박상원 전국총회장) / 주관 : 미주한인재단-LA (빈센트 김 LA회장, 정시우 이사장) 1543 W.Olympic Blvd., #317, Los Angeles, CA 90015 | Tel, 213-784-2075 Fax, 213-381-6234 / e-mail:kafusa21@gmail.com

미주한인이민 110주년 기념사업회(특별위원회) 전국 조직

- 공동회장 : 유진철, 신현웅, 박상원 • 조직 위원장 : 아브라함 최 • 한국 위원회 상임대표 : 김영진 • 한국 위원회 사무총장 : 장현일
• 지역회장과 준비위원장 : LA 빈센트 김 / 김재권, DC 이은애 / 린다 한, NY 윤정남, NJ 주옥근, Chicago 김형주 / 이진, Las Vegas 이창원, SF 권옥순, Sacramento 조현포, New Mexico 김두남, Alaska 윤요한, Idaho 박서경, Atlanta 김창엽 / 박홍자, Georgia 박효은 / 이재승, Montana 이이호, 중가주 차만재, Denver 정일화, Eugene 류기원, Federal way 고경호, Hawaii 이덕희, Olympia 안무실, Orange 안영대, Tustin 김경자, Irvine 송규식, Seattle 한순, Tacoma 패티 김, Spokane 신원택, Vancouver 이흥복, Boston 김성혁
• 준비 위원 : 이정희, 김경숙, 신명숙, 김막동, 김진일, 박신숙, 오상철, 성원경, 이광역, 오구, 오준걸, 정정아, 김영태, 김윤영, 자넷김, 린다 이, 에스더 최, 우정자, 이정순, 어양우, 최은경, 오숙희, 셜리장막팀, 이상용, 박신형, 성태진, 그레이스 진, 이의령, 김해경, 이현우, 신희준, 강철, 유영신, 이성호, 주정호, 권애희, 피터권, 유혜량, 라상희, 지병주, 김성웅, 전중재, 헬렌 박, 박요셉, 수진백, 류형섭, 로버트 이, 임서희, 김동훈

미주한인재단 전국 대회 미주한인이민 110주년 기념 및 2013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행사 대회조직

- 대회장 : 이용태 • 공동대회장 : 배무한, 김영대, 변영익 • 명예대회장 : 소강석, 김영진, 정시우, 윤성원, 박동우
• 대회상임고문 : 박희민, 송정영, 한기형, 박종대, 박신숙, 오상철, 박성규, 김봉건, 최희만, 박광희, 이광역, 양승철
• 대회 고문 : 미셸 박스틸, 스티브 황보, 밀러오, 최석호, 조재길, 서영석, 류형섭, 박요셉, 박효우, 조지희
• LA공동준비위원장 : 김재권, 이정순, David 임, 조동진
• 행사위원장 : 이정희
• LA 사무총장 : 김경숙
• 음악 총감독 : 전중재 교수
• 준비위원 : 데어도르 차, 양경선, 지니 박, 김복임, 신명숙, 김막동, 김윤영, 자넷김, 린다 이, 에스더 최, 김경자, 송규식, 정희임, 김경혜, 우정자, 이정순, 이상용, 그레이스 진, 권애희, 피터권, 수진백, 류형섭, 로버트 이, 임서희, 김동훈
• 자랑스런 미주한인대상 수상자 : 토마스 정 (LA) / 권동환 (DC) / 김창원 (Hawaii)
• 특별후원 : 한국일보 미주본사 / 중앙일보 미주본사 / 미주복음방송 / 라디오 코리아 / 라디오 서울 / RadioK1230 우리방송 / TVK24 / SBS / LA18 / 크리스천월드 / 기독교일보
• 후원 : 각 언론사 / 방송사 / 재외동포재단 • 협찬 : 새에덴 교회

# 美 6만여 크리스천들에게, 서울 집회 영상 보여주며...

## ‘패션 2013’ 컨퍼런스 개최... “하나님께서 세계적 운동 만드신다”

6만여명의 대학생들과 크리스천 리더들이 참석한 ‘패션 2013’ 컨퍼런스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조지아동과 조지아 월드콩그레겐터에서 은혜 속에 개최됐다.

패션 컨퍼런스 창립자이자 비전 설계자인 루이 기글리오(Louie Giglio) 목사는 청중들을 향해 “이것은 꿈이 아니고 실재다. 난 오늘 밤 여러분들이 어제 축구경기를 지켜보던 관중들보다 더 크게 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션 관계자와 자원 봉사팀은 지난달 31일 칩필에이 축구경기가 끝난 조지아 돐에 모여 수 시간 동안 모임 준비를 위해 땀을 흘렸다.

패션 운동을 이끌고 있는 기글리오 목사는 “1996년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들, 특히 2000만명의 대학생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 이들 중 대부

분은 왜 자신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패션’이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초점을 맞추길 원하고 젊은이들이 그들의 세대에 예수님을 알리고자 하는 삶의 목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돕길 원한다”고 전했다.

그는 1995년 약 6만여명이 서울에 모여 예배드리고 강의했던 컨퍼런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운동을 만들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크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해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을 이 세대에 일으키길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수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여기 있고 나는 또 다른 6만명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글리오 목사는 에베소서 3장 20절을 인용하며, 측량할 수 없이 높이 계신 주님의 큰 소망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반복적으로 전했다.

또한 에스겔 36장에서 37장, 마가복음 9장 등을 인용하며,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해, 현재 처한 어두운 상황과 어려움에 상관없이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에스겔서에 나타난 기도의 응답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서 복잡한 질문과 어려운 도전 속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원하신다”고 전했다.

기글리오 목사가 전한 설교의 주제는 “섭리 가운데 각 개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는 패션 2012 컨퍼런스에 참석해 과거의 마약 중독에서 자유케 된 한 대학생의 사

연을 전하며 “예수님이 오실 때, 진정 자유하게 된다”고 증거했다. 그는 특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컨퍼런스가 아닌 예수”라고 강조했다.

패션 측은 ‘2013 프리덤’을 소개하며 ‘현대판 노예’로 고통받는 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감싸안고 이들이 빛 가운데 나오도록, 전 세계 2,700만명의 학생들이 자유함을 얻도록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패션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은 성경번역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2만7000달러를 모금해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말리(Mali)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는 그래미상 수상자인 예배인도자 크리스 탐린의 인도로 시작됐으며, 탐린은 컨퍼런스를 위해 만든 특별한 신곡을 소개하기도 했다.

1일부터 4일까지 이어진 ‘패션 2013 컨퍼런스’에는 프란시스 찬 목사, 존 파이퍼 목사, 베스 무어 교수 등 유명 교계 인사들이 강사로 나서며, 미국 50개 주, 55개 국가, 2,200여개 대학 캠퍼스에서 약 6만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는 패션 운동의 18년 역사상 미국의 단일 집회로는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것이다. 강연은 Passion website를 통해 무료로 들을 수 있다.

강혜진 기자



패션 2013 컨퍼런스에 참석한 6만여명의 대학생들과 크리스천 리더들. ©패션 2013 컨퍼런스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 2세 중심의 선교동원집회 ‘하이어콜링’ 성황리 개최



‘하이어콜링(Higher Calling) 컨퍼런스’에 참가한 1,500여명의 청년·대학생들이 두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

이민교회의 청년들을 선교에 동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선교축제 ‘하이어콜링(Higher Calling) 컨퍼런스’가 지난달 26일부터 3박4일간 샌디에고 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남가주 일원 고등학생을 포함한 1천5백여 청년·대학생들이 참가했고, 이들이 뿜어낸 뜨거움은 행사장 전체를 덮고도 남았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요 8:32)”라는 주제하에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GKYM(Global Korean Young Adult Mission)과 미주성서화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했고 KCCC가 주관했다. 이 기간 중 LA 서부지역 뿐만 아니라 애틀랜타, 시카고, 뉴욕, 토론토 등 5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려 거대한 영적 무브먼트를 일으켰다는 평가다.

중전의 GKYM 대회는 한인 1세와 2세가 연합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면, 이번 컨퍼런스는 2세들이 주축이 돼 열렸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를 반반씩 섞어 진행했던 종전 대회와 달리, 이번엔 시작부터 끝까지 전 트랙이 영어로 진행됐다. 참가자들도 9할 이상이 영어권이었다. 물론 다소 영어가 미숙한 한어권 학생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통역도 마련됐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몇몇 대형교회들 중심으로 대회가 진행될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교회 크기에 상관 없이 영어권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남가주 일원의 2세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됐고, 이것이 바탕이 돼 이번에 이같은 2세 중심의 컨퍼런스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아침 및 저녁 세션을 비롯해 선교를 주제로 한 50여개의 선택식 특강, 복음전도 훈련 및 실습, 스몰그룹 토의, 하이어콜링 페스티벌, 금식, 기도회 등으로 진행됐다.

강사로는 샌디에고 The Rock Church 마일스 맥피어슨 담임목사, New song church의 데이브 기본스 목사, 창세기 권위자이자 변증학의 선구자인 켄 램 목사, 동양선교교회 박형은 담임목사, KCCC USA 대표 김동환 목사 등이 나섰다. 주제별 선택식 특강 외에도 멘토들과의 교제 및 상담, 선교단체 박람회, 선교로서 박람회 등의 프로그램들도 마련돼 선교에 관심있는 청년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대회를 총 주관한 KCCC 김동환 목사는 “오늘날 교회가 그 권위를 도전받고 있는 가운데, 초대 교회처럼 수많은 박해를 넘겨야 이길 수 있는 ‘변화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성령을 경험한 학생들이 변화된 삶, 변화된 세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를 만났던 모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바울처럼 (이 컨퍼런스를 통해) 21세기의 모세와 바울이 일어나길 소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는 어떤 교회나 선교단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선교를 위해 북미주 전역의 차세대 안에서 일어난 이러한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특히 새로운 세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한나 기자

베스트 셀러 "영어 훈련소" (김영사) 저자 하득희 교수의 기적의 영어회화

# 베스트 영어훈련원

- 영어. 말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 23기 훈련생 모집**
- 회화 3년 과정을 3개월에 완성하는 영어 훈련원
- 오랫동안 영어회화의 전문가들에 의해 입증된 방법을 최초로 교육화한 훈련원

LA 한인타운	플러튼
<b>훈련기간</b> 2013년 1월21일(월)~ 2013년 4월 10일(수) 주 3회(월화수반/ 토요반) <b>훈련시간</b> 주중반: 오전 10:00~11:40 저녁 7:30~9:10 토요반: 오후 3:00~7:30 <b>무료설명회</b> 2013년 1월21일(월) 오전 10시, 저녁7시30분 <b>훈련장소</b> LA 베스트 영어 훈련원 3251 W. 6th, #101 LA, CA90020 (6가 + 뉴햄프셔) <b>등록비</b> 580불(일시불, 교재비 포함) <b>접수</b> 설명회 당일	<b>훈련기간</b> 2013년 1월22일(화)~ 2013년 4월 13일(토) 주 3회 ( 월화수반/ 목금토반) <b>훈련시간</b> 월화수: 저녁7:30~9:10 목금토: 오전10:00~11:40 <b>무료설명회</b> 2013년 1월 22일(화) 오전10시, 저녁7시30분 <b>훈련장소</b> 1309 W. Valencia Dr., Fullerton CA92833 (Brookhurst & Euclid 사이) <b>등록비</b> 580불 ( 일시불, 교재비 포함) <b>접수</b> 설명회 당일

### 훈련대상

- ▶ 오랫동안 공부했으나 영어회화가 잘 안되는 분
- ▶ 직장생활과 비즈니스 하는데 영어회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
- ▶ 미국사람만 보면 겁이나고 말이 안나오는 분
- ▶ 다 아는 내용인데 말이 안되는 분
- ▶ 라디오, TV가 전혀 안 들리는 분
- ▶ 미국식 발음과 문법에 자신이 없는 분

### 기적의 영어회화의 특징

**LA 제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기 훈련생들 격찬! 또 격찬!**  
 뉴욕 한인들로부터 확실한 검증/뉴욕 한국일보 기자가 직접 참석을 통해 "바로 이것이다" 격찬  
 타운뉴스 기자 직접 훈련 후 격찬 / LA 다양한 분들 훈련 후 찬사  
 " 영어 훈련소" <김영사>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 강연회 폭발! 1년 해외 연수보다 더 효과적인 곳!

### 기적의 영어회화의 방법

- ▶ 가장 쉽고 단순하게 영어에 자신감을 갖는다.
- ▶ 중학교 1,2 학년 영어교과서를 읽을 수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 ▶ 눈으로만 해오던 영어방식을 입체적 방식으로 대전환
- ▶ 분석하지 말것, 단순하게 영어에 자신감을 갖는다.
- ▶ 공부하지 말것, 훈련하라!
- ▶ 책한권을 끝냈다고 방심하지 말것, 그냥 자주 반복하라!
- ▶ 음성학적인 원리를 터득함으로써 발음문제 해결
- ▶ 단순 반복으로 문장이 생각과 동시에 흘러나온다.
- ▶ 시각, 청각, 구강근육운동을 통해 뇌를 입체적으로 자극하는 학습
- ▶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것, 그냥 자주 반복하라!
- ▶ 뇌리에 영어 코드를 만들어라!
- ▶ 시간을 길게 잡아 지쳐 포기하지 말것,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한국영어훈련소의 폭발적인 인기와 성과, 교육수료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하득희저음 영어훈련소(김영사)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www.spiritenglish.com cafe.godpeople.com/spiriteng

**베스트 영어훈련원** (213)239-4815  
(213)507-0691



‘종교인 과세’에 대한 미자립·개척교회 목회자들 생각은

“긍정적 요소 많다” vs “교회 통제 심해질 것”

정부가 이달 내에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기독교 내에선 이 문제가 남세 여력이 있는 중·대형교회보다 미자립·개척교회에 더 민감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해,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취재 결과, 미자립·개척교회 목회자들 역시 찬반으로 나뉘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 시흥의 개척교회에서 목회 중인 A 목사는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되면 교회 각각의 소득수준이 드러나면서, 열악한 환경의 교회들이 더욱 주목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주변에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대개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다. 교회 1만 개가 세워지면, 그만큼의 교회가 다시 문을 닫는다는 말도 있다”며 “이런 어려움들이 사회에 더 알려지고, 그래서 이들에게도 도움이 손길이 미칠 수 있다면 납세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에서 최근 교회를 개척한 B 목사 역시 “비록 개척교회지만 얼마 전부터 스스로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납세로 인한 불편함은 별로 없고 오히려 좋은 점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수입의 많은 부분을 기부금 형식으로 지출하는데 세금을 내니 그런 것들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다. 걱정만큼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았다. 납세로 사회적 의무를 다하면서도 그것을 환급 형태로 다시 돌려받으니 교회 입장에선 손해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 명동 인근에 몇해 전 교회를 개척한 C목사는 “자진 납부는 할 수 있지만 이를 법제화 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이미 세금을 낸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한 것에 다시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과세 원칙에도 어

긋나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소위 ‘선행(善行) 논리’에 함몰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노랑진에서 개척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C목사도 “세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국가가)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도 종교법인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가 엄청난 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세금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은 교회가 앞으로 더 큰 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목사는 “단순히 세금만 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기니 부가적 지출까지 고려해야 한다. 미자립교회의 입장에선 이래저래 부담”이라며 “무엇보다 교회가 가진 순기능이 침해될 수 있다. 정부는 가능하면 종교가 가진 고유 목적 실현을 위해 법적 제약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다음 주(1월 14일 주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여기에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길지는 여전히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만약 포함될 것을 대비해, 현재 어느정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이전에 세금을 거둔 적이 없어 세수 추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만 밝혔다.

기독교의 경우 미자립·개척교회가 대부분이라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번 종교인 과세 논의는 재정의 손익적 차원이 아닌 ‘성직자도 국민인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일종의 원칙적 차원”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한기총, 새해 맞아 아가페소망교도소 방문해 격려

홍재철 대표회장 “낙심말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희망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가 1월 9일(수) 오전 11시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아가페소망교도소(심동섭 소장)’에서 ‘2013 신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한기총은 1995년 10월 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문위원을 세워 민영교도소를 연구했는데, 이것이 아가페소망교도소의 시작이었다. 1999년 12월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됐고, 2001년 6월 한국교회 연합으로 세워진 (재)아가페(초대이사장 김삼환 목사)는 2003년 2월 법무부와 민영교도소 수탁계약을 체결했다. 2010년 12월 개소했으며 초대 권중원 소장이 취임했다.

아가페소망교도소는 수감자의 진정한 내적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입소에서 출소 후 사회정착까지 종합적인 맞춤형 프로그램(I-P-R)을 운영하고 있다. 과정은 입소 오리엔테이션, 내적변화를 위한 집중 인성교육, 인간관계 회복 훈련, 출소 후 사회정착 등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심동섭 교도소장은 “현재까지 140여명의 출소자 중 재범자는 1명 뿐이다. 일반 교도소의 재범률은 21%에 달하는데, 정말 놀라운 수치다. 모두 한기총에서 잘 지도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교도소를 통해 사회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과거 실수로 인해 힘들었던 때에 오히려 회심하여 예수를 더욱

깊게 믿게 된 간증을 전하며, “교도소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삶에는 희망이 있다. 낙심하지 말고, 멋진 신앙의 교훈을 남기길 바란다. 한기총이 아가페소망교도소 설립에 기초만 닦고 큰 관심을 갖지 못했었는데, 이제 애착을 갖고 교도소 설립에 56억 용자를 갚는 것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기총은 이를 위해 가임 교단을 중심으로 후원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공동회장 김성광 목사는 ‘복 있는 사람(시 1:1~6)’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증경 회장 엄신형 목사는 격려사에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으나 신앙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현실을 극복해 나갔고, 결국 모든 고난은 전화위복이 됐다”며 수감자들을 독려했다.

수감자들은 코리아나 이애숙 집사와 경서교회 한미경 권사의 특송을 들으며 큰 위로를 받았다.

예배는 사회 공동회장 이강평 목사, 인사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대표기도 공동회장 하태조 장로, 성경봉독 예장연합총회 정초자 목사, 특송 코리아나 이애숙 집사, 설교 공동회장 김성광 목사, 격려사 증경회장 엄신형 목사, 교도소보고 상임이사 김상학 목사, 특송 경서교회 한미경 권사, 광고 부총무 윤덕남 목사, 축도 직전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오찬기도 예장합동개혁총회장 이용운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신태진 기자

KWMA, 제23회 정기총회 개최... 한정국 사무총장 연임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대표회장 강승삼 목사, 사무총장 한정국 목사, 이하 KWMA) 제23차 정기총회가 7일 노랑진 CTS 기독교TV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총회는 1부 개회예배와 2부 회무처리로 진행됐다. 법인이사장 박중순 목사(충신교회 원로목사)는 마태복음 12장을 본문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박 목사는 “한국 교회는 분파주의, 편주의의, 세속화, 교계의 지도력과 영향력의 감소 등의 질병과 아픔을 겪고 있다”며 “우리가 본질, 성령으로 돌아가야 하고, 교회가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선교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적인 충전을 제공하는 것이 KWMA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KWMA 선교기구

를 통해 합할 일은 합하고 합력할 일은 합력해 나갈 때 한국교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회무처리는 KWMA 대표회장 강승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회의순 채택, 전회의록 낭독, 사업·감사·회계보고에 이어 2013 조직안·사업계획안·일반회계 예산안 등 승인, 신안건 토의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한정국 사무총장의 연임도 확정됐다. 한정국 사무총장은 “연합 운동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합은 깨어지기 쉽지만, 만들면 아름다운 그릇과 같다. 선교계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지 않고 역할 분담을 잘 해서 나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혜진 기자



LA 지역 교회 목록: 갈릴리산교회, 갈보리민음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제일교회, 남가주광염교회, 남가주리디머교회, 소중han사람들,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영생장로교회, 엘에이연합감리교회, 올림픽장로교회, 임마누엘선교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지구촌 농업선교회, 청운교회, 흥현선교교회, 한우리장로교회, LA사랑의교회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 213) 739-0403 F. 213) 402-5136

# 교회를 위한 기도

##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회 오후 8:00  
3부영양예배 오후 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토)  
3부 오전 11:30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11:45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00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7:30  
유저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마원철 담임목사**

**인랜드온누리교회**  
말씀에 뿌리내려 자리나머 열매맺는 은혜의공동체

9806 Arrow Rt., Rancho Cucamonga, CA 91730  
T. (909) 945-9191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문/서/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청소년부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 사우스 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영양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일양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주님과 사명을 뜨겁게 사명하며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EM) 오전 9:45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양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문의 가치를 보나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양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AA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케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오후 1:00    오전 7:00(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일양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양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00(토)  
한국어 오전 10시 (일부주일)    수요일예배 오후 7:45  
오전 12:00(분당)    금요일양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1부 예배 오전 11:00    제자훈련(수)오후 8:00  
2부 청년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회(목)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성령침회(금)오후 8:00

**심형섭 담임목사**

**하늘빛 선교교회**  
예배에 생명을 걸고 말씀으로 훈련하며 민족과 영혼을 섬기는 공동체

1011 Grandview Ave. #D Glendale, CA 91201  
T. (818) 247-4673

문/서/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 워싱턴 교계, 오리건 관광버스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깊은 애도

## 부상자들의 빠른 치유와 유가족들을 위한 기도 당부



가드레일을 뚫고 고속도로 아래 언덕으로 떨어진 사고 버스

워싱턴주 각 지역 교계는 지난달 30일, 오리건 주 동부 펜들턴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전복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다. 또 각 지역 교계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상당한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교계 관계자들은 "워싱턴주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부상자들의 빠른 치유와,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고통 받는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유가족들과 환자들이 새롭게 용기를 얻고 다시금 소중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하자"고 당부했다.

새해를 이틀 앞두고 일어난 이번 참사는 탑승자 총 47명 가운데 9명이 사망하고 21명이 큰 부상을, 17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대형 사고였다. 특히 사망자 9명 전원이 한국 국적 또는 미국 국적의 한인이었으며, 부상당한 38명 가운데 한인이 33명이나 될 정도로 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고는 미 서부 여행을 위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아, 가족 가운데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생하는 참사였다. 또 사망자들 중에는 시애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주변 지인들의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다. 사고는 캐나다 밴쿠버의 한인 여행업체 미주관광여행사 소속 전세 관광버스가 30일 오전 10시 30분경, 미국 오리건 주 동부 펜들턴 인근 84번 고속도로 언덕 아래로 30m가량 굴러 떨어지며 일어났다. 사고 버스는 지난달 21일 캐나다 밴쿠버를 출발 엘 에이와 라스베가스 등 미 서부지역 8박9일 관광을 마치고, 지난달 30일 오전 5시 경, 아이다호 보이시를 출발해 당일 저녁 밴쿠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탑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눈길에 운전사의 과속과 난폭운전으로 모야지고 있다. 승객 중 일부는 버스가 너무 빨리 달린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운전사가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승객 중 한 명은 눈이 내리고 안개가 많이 끼어 운전사에게 다른 길로 갈 수 있는지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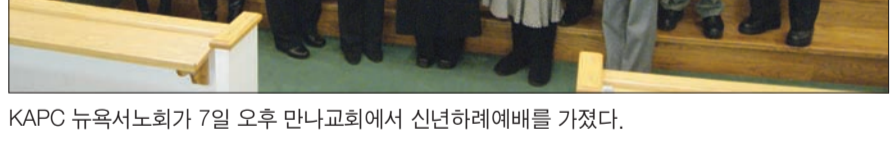
시애틀 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별 탑승객 현황은 한국 국적 24명을 비롯해 미국 12명(한국계 11명), 캐나다 8명(한국계 7명), 대만 2명, 일본 1명으로 총 47명이었고 이중 한국계가 42명이었다.

한편 시애틀총영사관은 담당영사 등 직원 6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하여 현지 경찰당국 및 적십자사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사고 피해자 신원확인, 영사보호 및 면담 실시, 퇴원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 브라이언 기자

# 뉴욕 일원 노회들 신년하례예배 시작

## KAPC 뉴욕노회 · 서노회 잇따라 개최



KAPC 뉴욕서노회가 7일 오후 만나교회에서 신년하례예배를 가졌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조문선 목사)가 신년하례예배를 7일 오전 11시 퀸즈장로교회(담임 최규성 목사)에서 드리고 2013년 힘찬 사역의 시작을 알렸다. 뉴욕 일원의 각 교단 노회들은 KAPC 뉴욕노회를 필두로 이달 말까지 신년하례예배를 연속적으로 연다.

이날 KAPC 뉴욕노회 신년하례예배는 노회장 조문선 목사의 인도로 임영건 목사 기도, 박해창 목사 성경봉독, 장영춘 목사 설교, 이규본 목사 축도, 이영상 목사 광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표기도를 맡은 임영건 목사는 "새해 교단의 목회자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강권하심이 있게 하시고 새해 우리 목회자들이 갈 바를 명확히 알아 복음의 큰 능력이 있게 하달라"고 기도했다.

이어 장영춘 목사는 "지혜있는 목회자"(렘 5:15-2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목회자들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데 다른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지혜"라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성경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목회자가 될 때 솔로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모인 목회자들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APC 뉴욕서노회(노회장 피운생 목사)도 7일 오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신년하례예배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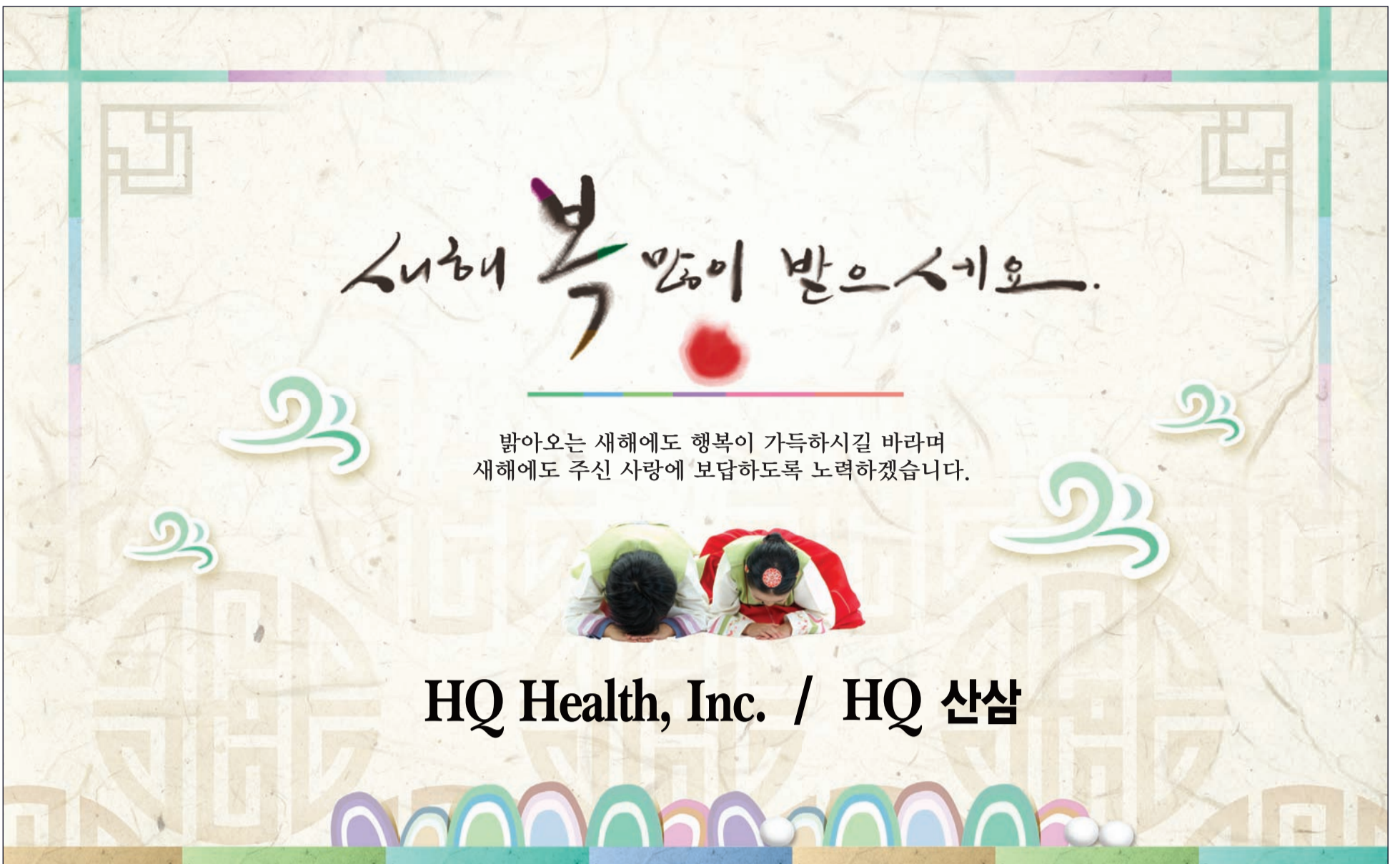
예배는 피운생 목사 인도로 강함원 목사 기도, 박종용 목사 성경봉독, 최광진 목사 설교, 정관호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최광진 목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세요?"(벧전 3:10-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의 기록된 것과 같이 행하면 된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한다"며 "우리의 입은 우리의 속을 표현하는 기관이다. 말로 축복하고 말로 저주한다. 우리 목회자들, 사모의 입은 다른 사람들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광진 목사는 "입이 목회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말 속에 사랑을 담을 수도 있고 미움, 저주도 담을 수 있다. 그러기에 입조심 말조심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얼마나 입조심 말조심을 하고 사는지 살펴볼기를 바란다. 말은 행동하게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른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원 기자





밝아오는 새해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새해에도 주신 사랑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신년맞이 특별세일**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

타 업체보다 2-3배 싼 가격

항상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신년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느 때 보다 더 풍성하게 한 뿌리라도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구연산도 더 많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꼭 챙겨가시고 더욱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년을 맞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산삼도매 한인 최대 유통회사**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300여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업체

NY, PA, VA, NC, WI 최상급 산삼 자생지에서만 채취해 옵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들여와 상싱하게 보존해 판매합니다. 씹거나 달이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드시도록 복용법을 드립니다. 홍삼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드리고 있지만 **진짜 야생 산삼**입니다.

**60년~120년근 (15그램~35그램/뿌리당)**  
정상가 2400불~3360불/파운드  
**특별 세일가 1200불/파운드**  
+ 구연산 560불어치(16병) 공짜 선물

**산삼 기획 상품 가격표** 시행일: 2012년 12월 29일

가격	무게	산삼 수령
\$600	210 그램	평균 40~80년근
\$200	70 그램	평균 50~100년근



**70그램 평균 40-80년근** **소매가 \$1,800 \$200**  
\* 20-30년근이 모두 품절되어 절호의 기회입니다.



**210그램 평균 50-100년근** **소매가 \$3,000 \$600**  
\* 40-50년근이 모두 품절되어 절호의 기회입니다.



※ 정상 산삼을 그대로 말린 산삼도 고급 산삼 제품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 가장 오래되고 최상의 뉴욕 고냉지 산삼(시중 가격 1만불 이상)을 최저 도매 가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생삼일지라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으며 식품 검역소, 면세통관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모든 제품은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선물 증정**

산삼 200불 구입시마다 /2병  
**구연산 \$80(소매가 기준)**

산삼 600불 구입시마다 /8병  
**구연산 \$280(소매가 기준)**

**\$30** **\$5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Made in USA**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오리지널**

**Citric Acid**  
Kosher Approved Organic  
Net wt. 8oz. 226g  
100% Pure Citric Acid Anhydrous, CAS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불/ea + tax**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세일기간 : 1월 31일까지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A**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280불) **100불**  
or 오리지널8병 +tax



**프로모션 B**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270불) **100불** +tax



**프로모션 C**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280불) **100불** +tax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HQ Health, Inc. / HQ 산삼**

**100% 환불 보장**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 2013년, 제2의 청교도운동 영적 한류의 새 바람



**박희민 목사**  
본지 편집고문  
나성영락교회 임시당회장

주의, 외적 성장과 세속적 성공주의와 이원론적 신앙으로 인해 생명력을 잃어버렸으며, 밖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고 사회를 변화시켜갈 만한 역동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화하는 대형교회의 비리, 지도자들의 스캔들과 교회의 갈등과 분열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0명 중 2명 밖에 안되는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북미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동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세대간 소통의 부재와 교회 분열로 인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가 영적 성장보다는 세속적 가치관과 성공을 더 기대하기 때문이며, 대학에 가면 캠퍼스에서 세속적인 교수들과 학우들의 영향으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개혁되며 변화되기 위해 신학적 신앙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설교신학자 토마스 룬에 따르면, 설교 패러다임이 역사와 문화가 50-60년 마다 바뀐다고 합니다. 교회 사역의 패러다임 역시 급변하는 세상에서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개인구원과 경건을 강조해 왔고 이원론적 신앙생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지만 사회에 나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기업을 운영하고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며 운영할 것인가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경우를 봅니다. 아니, 사회를 대 처하고 변화시켜 가기 위한 영성 훈련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새해는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교회사역의 새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몸부림과 씨름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인 이민교회들이 변함으로써 청교도 신앙과 정신으로 세워진 이 미국 땅에 제2의 청교도운동을 불러 일으키고, 영적 한류의 새 바람이 불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새해를 맞는 한인교계와 미국 사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는 미국, 중국, 한국 등 많은 나라들이 선거를 통해 새 리더들이 취임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거나 새 팀(Term)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는 해입니다.

지난 한 해는 여러가지로 힘든 해였습니다. 미국사회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치유와 회복, 미국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 많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을 위한 다민족 중보기도회의 날과 행사를 가졌고, 이 기도모임에 미주 한인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미 주류교계와 사회와 타 소수민족교회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영적 도전을 하는 귀한 기회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영적 한류의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먼저 개혁되고 변화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128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여 3.1운동 때는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암흑같은 민족의 위기에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민족의 지도자로 헌신해 오늘날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국가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등 각 분야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한국교회는 물량적 가치관과 성장주의에 몰두하면서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 기복주의, 개교회주의, 교파

## 하나님 영광의 빛을 세상에



**진유철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이제 2012년을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입학, 취업이라는 새 출발의 시작이고, 야구의 9번 타자는 1번 타자와 연결되듯이 끝이 있어 새로운 시작이 열려지는데, 2013년의 시작은 희망만을 이야기하기에는 이어지는 짐이 너무나 버거워 보입니다. 계속되는 불경기, 반복되는 충격의 충격 사건과 같은 대형사건 사고들, 동성애 문제와 더불어 예수님을 찾기 어렵게 변화하는 미국 성탄절처럼 침체되는 기독교의 모습, 그리고 유엔비어로 오염된 SNS와 흑색비방의 우려 속에 치러진 미국과 한국의 대선 등,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새해의 희망을 노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타블로라는 가수가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한 학력에 대해 의심하는 네티즌들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의 프로에서 또 한국 검찰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 했었는데,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학 졸업은 '진짜'로, 그의 학력위조를 주장했던 네티즌의 신원은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발표도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타블로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입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길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의 복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기도로 새해 희망의 문을 열 수 있는 까닭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깊은 어둠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출

33:18)라고 간구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힘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출40:34)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 됨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빛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두움은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두움이 문제가 아니라 빛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2013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줄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될 때 주님은 내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내가 아무 것이 아닐 때 주님은 내게서 모든 것이 되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해 하나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출발이요 참된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비우고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이 은혜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 새해 새 출발



**민경엽 목사**  
OC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격동의 2012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우리에게 2013년이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물어야 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벧후3:11)"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본분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는 것은 실상은 교회의 잠을 깨우려는 하나님의 촉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부진은 과거와 함께 묻어버리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는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해에 새롭게 도전할 것들이 많겠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심(昨心)이 삼일밖에 가지 못한다면 삼일 후에 또 작심하면 됩니다. 사실 바울은 날마다 작심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지난날의 실패에 함몰 당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해 주실 주님을 믿으며 새해 새 출발하십시오!

##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해



**이운영 목사**  
남가주 한인목사회 회장

신년이 되어 어떤 한해가 될까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가꾸어 나로 인해 가정과 교회가, 더 나아가 사회가 나아지도록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해를 시작합니다. 교회와

교계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목회자들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말씀연구에 전력을 다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은 믿음으로 행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목사회, 성실과 봉사로 교계에 인정받는 목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거룩한 발걸음 "Travel of Life" 성지순례

성지순례란, 단순한 관광적 차원을 넘어 순례하며 예배하며 말씀의 현장을 찾아가는 행복하고도 거룩한 여행입니다

### "Travel of Life" 2013년 성지순례 계획

- 출애굽 순례**
  - 1월 29일 출발 -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9일 \$ 2,290
  - 2월 19일 출발 - 이집트(룩소),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 2,590
  - 3월 11일 출발 -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12일 \$ 2,890
  - 4월 2일 출발 - 이스라엘, 요르단 9일 \$ 2,490
- 사도바울 전도여행 순례**
  - 3월 12일 출발 - 터키 8일 \$ 1,590
  - 4월 8일 출발 - 터키, 그리스, 로마 10일 \$ 2,490

\*\*LAX 공항 출발 기준이며 타주 출발을 원하시면 별도 문의 바랍니다  
\*\*최소 출발기준 15명입니다  
\*\*위의 날짜는 모두 100% 출발 확정된 것입니다

### "Travel of Life" BIBLE FIELD STUDY

- INSTITUTE OF THE BIBLICAL GEOGRAPHY 와 협력하여 진행
- 성경의 중심무대인 이스라엘을 성서 지리학적인 순례를 통하여 깊이있게 공부하는 교육 프로그램
- 3월 1일 (마감) / 3월 11일 (신청가능) / 4월 1일 (신청가능)

### 목회자 안식년 PROGRAM

- 종교 개혁지 탐방**  
종교개혁지를 방문하여 개혁신앙의 현장을 체험하고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영적 계기를 마련코자 준비한 일정
- 회복 여행 (Retreat Tour)**  
사역에 지친 몸과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회복시키는 일정

문의 : TRAVEL OF LIFE - BLISS & GANA 714.681.6356  
Los Angeles Office, 8935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E-MAIL : traveloflife1@gmail.com

###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으로”



**이상명 목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지혜로운 뱀과 하늘을 나는 날짐승 가운데 순결을 상징하는 비둘기의 절묘한 조화로 대변되는 크리스천의 덕목입니다. 하늘 백성으로서의 순결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없이는 '이리'로 상징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결함을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2012년 한 해는 이전보다 복음적 가치가 심각하게 도전받은 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전체 인구 가운데 개신교도의 수가 50% 미만으로 떨어진 해였고, 동성애와 같은 반복적인 가치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때였습니다.

더불어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의 도전 또한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적 불황과 함께 물질적 타락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뱀의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2012년의 반복음적 도전에 대해 2013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과 같은 지혜로 무장하여 복음적 가치로 응전해야 할 것입니다. “어그러지거든 세대 가운데서”(빌 2:15) 비둘기같이 흠이 없고 순전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배하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벧후 3:8).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생애의 축수관과 같은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력투구할 수 있는 그런 한해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과제 속에서 2013년을 맞이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과 기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으로 2013년 새해를 살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의 범사와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대망의 새해가 찬연하게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미주지역뿐만 아니라 온누리에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은 매듭이 없지만 마치 시간이 매듭지워진 것처럼 우리는 어제와 오늘을, 작년과 올해를 구분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반복되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시간을 매듭지워진 단위로 묶었습니다. 그것은 늘 돌아보면 후회와 잘못으로 점철된 과거를 매듭짓고 보다 밝고 복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자 우리의 바람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일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싸울 때다. 지금이야말로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때다. 오늘 그것을 못하면 내일 그것을 할 수 있는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 Kempis)의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인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노동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거역하고 싸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다듬어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는 뱀의 해(계사년)입니다. ‘뱀’과 관련된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교지로 보내시면서 베푸신 소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 10:16).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필히 지녀야 할 두 가지 덕목을 말씀하십니다. ‘순결’과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땅의 들짐승 가운데 가장

### 주 안에서 승리하는 2013년 되길



**곽소건 목사**  
남가주 중부교회협의회 회장

새해에는 초교파적으로 140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남가주 중부교회협의회가 진리의 복음 안에서 화합과 일치를 보이며, 지역사회를 섬

김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물결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세상이 되는데 초석을 다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의 심각성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은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의 좌절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중부교협은 진리의 복음 안에서 고이나 과부를 존귀하게 섬기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세상의 양극화 현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여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또한, 중부교협은 장수 시대를 맞이한 현대사회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후원과 투자는 붓물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모 든 것을 국가에 맡기고, 소홀하게 여기는 현상을 극복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퇴후 30-40년을 보내야 하는 노인들에게 재창조의 기반을 조성해주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더불어 달려가며 함께 승리하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는 영적 리더 되자



**신중은 목사**  
OC목사회 회장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진년을 뒤로 하고 새해에는 새로운 소망과 기대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주의 종들이 우리 목회자들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스스로 더욱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듯이 각 지역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먼저 말씀에 매진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주님과 영적

교통 가운데 살아야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모든 목회자 동역자님들! 우리 함께 모여 기쁨도, 아픔도, 즐거움도, 소망도 그리고 비전도 함께 나누는 참으로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교회마다 성령님의 능력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새해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 밝은 미소가 춤추는 새해가 되길



**박용덕 목사**  
남가주 빛내리교회 담임

카카오톡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행복이란 녀석’인데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행복이란 녀석이 자꾸 따라 오네요. 언젠가는 내가 싫다고 그

렇게 도망가더니. 한참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는 좋다고 자꾸 자꾸 따라 오네요. 시도 때도 없이 나만 졸졸 따라 다니네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한테 물었더니. “너 왜 자꾸 날 졸졸 따라다니니?” 녀석은 간단하게 대답하더군요. “너의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지난 수년간에 걸친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웃고 싶어도 경제가 웃음을 빼앗아 가고, 고난이 웃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어찌 육적으로 조

여 오는 경제의 압박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제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해도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 없고 태풍을 피할 수 없듯이 우리들 역시 고난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안으로 세상을 보고 영안으로 인생을 보며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밝은 미소가 춤을 추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교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드,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팩스 : (213) 402-513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김인호 CPA**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State Filing)  
 비영리 허가취득(IRS, FTB)  
 By-Laws, Minutes, Mission Statements  
 교회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s) 작성  
 교회 재정 및 행정 Internal Control 상담  
 교회 재정 소프트웨어 Quickbook, PowerChurch 설치 교육  
 교역자 및 직원 세무상담  
 Payroll Services

562-467-1114  
 cerritoscpa@gmail.com

Cerritos Accountancy Corporation  
 17215 Studebaker Road #150  
 Cerritos, CA 90703

**주님의영광교회 임직식**

주님의영광교회에서는 창립 14주년을 맞이하여 임직식을 갖습니다. 부디 오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목사 외 교우일동

**임직자**  
 장로장립: 권오성, 노현철, 윤현신, 이광수, 이종환, 임재출, 임제한  
 장로피탁: 오석진, 조석주  
 안수집사: 갈명준, 김갑술, 김성환, 김준천, 김준희, 김진민, 스티브리, 박홍범, 오영찬, 우중수, 우종원, 이상운, 이재영, 임병기, 장요셉, 피터전, 전신석, 조덕희, 조욱현, 홍중대, 황찬호  
 권사임명: 김미경, 김숙희, 박캘리, 배경희, 오희순, 이순자, 이영미, 이영희, 이자넷, 임향자, 글로리아전, 정지숙, 조승경, 티나조, 씨나체, 천정란, 홍정현, 황희옥  
 권사취임: 김미영, 민순희, 지예식, 최혜숙

**일시: 2013년 1월 20일 (주일) 오후 4:30**  
**장소: 주님의영광교회 비전센터 (Tel. 213-749-450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말씀: 안동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보수합동 국제총회 총회장)**

**주님의영광교회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 www.gcjc.org**

“새로 출발하는 기쁨”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명교회 담임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환경은 2012년도와 비교해 그렇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마음이 새로워지니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새 달력, 새 수첩, 새 결심이 새해에 주는 축복이지요.

새해라는 단어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금년에는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새해에 다시 시작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요. 다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작이라는 말에 가슴을 설레임에 만들지요.

만약에 시작이라는 말이 없다면 포기하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계속 절망하게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끝이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희망의 싹이 나는 것입니다.

희망은 바라는 것입니다. 소원입니다. 기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시작을 잘한다는 것은 목적을 잘 정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인생의 방향과 같습니다. 시작을 잘한다는 것은 목표를 잘 세운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글로 쓸수록 좋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꿈, 목표를 글로 기록하십시오. 기록한 것을 언제나 가지고 다니십시오. 목표를 글로 쓴 다음에는 그 목표를 자주 생각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읽도록 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며 읽도록 하십시오. 감정을 넣어 읽도록 하십시오.

목표를 글로 쓸 때 그 목표는 우리 마음에 새겨 집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그 목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행동에 옮기도록 하십시오.

희망찬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시작을 잘 함으로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께 넘치시길 바랍니다.



류수열 목사  
인랜드지역교역자협의회 회장

행동하는 삶

언어, 즉 말이란 인간만이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요 가치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동물들도 나름대로의 울부짖음으로 상호 소통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의 영역을 넘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써 자기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말로써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며, 말로써 자기의 뜻과 계획들을 표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흥수가 일듯 어딜 가나 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젠 말이 너무 많아서 말이 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직장 안에서 그렇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교회는 또 어떠합니까? 요즘 교회는 교회 밖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도전이나 비판이 아닌 감정적인 도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은 겉으로 말로만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할 뿐 실제로는 그들의 행동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즉 말만 무성하게 했지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단 사랑뿐이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2013년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한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에 새로 맞이한 새해에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실천하고 행동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와 교회에서 많았던 말들을 이제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주의 자녀의 빛된 삶을 세상에 비추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눅6:48) 모든 분들과 온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이 새해엔 가득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만 무성한 사랑 No!  
실천 따라야 제대로 된 사랑  
2013, 행동하는 한 해 되길

“나 보다 하나님 먼저”



더글라스 김 대표  
HYM

새해엔 그 어느해 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각 교회에서 갖는 특별새벽기도와 개인적으로 갖는 특정기도 기간 중에 드리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이전에 우릴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과 일과 환

경의 축복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드러져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영혼 구원에 이르는데 드러지는 우리 모두의 한해가 되도록 온 정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삶에서 밋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구하며, 말하고, 행한다면 우릴 통해 그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 오지 못했다면 이번 한해를 살면서는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지금 이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국 대한민국과 이곳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있는 지금의 이상 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영혼 구원에 힘쓰는 한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진모 목사  
사우스베이목사회 회장

찾고 두드리고 간구하라  
문제의 해결, 하나님께  
무릎으로 승리하는 한 해

지난 송구영신예배를 마친 후에 한 교인이 “목사님, 작년에 제가 기도제목으로 정하고 기도한 것을 보니까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 다 들어 주셨어요. 참 감사해요”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사무실로 들어가 작년 초 교인들이 제게 주신 '새해 기도제목'을 다시 한 번 꺼내 읽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기도제목만 적어 주셨지만, 어떤 분들은 꺼내기조차도 어려운 자신의 사정을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적어 주셨습니다.

그 중엔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또 가슴이 답답해지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그분들의 그렇게 아픈 사정을 모르고 있었던 제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 이 내용 좀 보세요. 이 사정을 좀 귀 기울이셔서 들어 주세요”라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무슨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

도함으로 주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보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그럴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매달려 간구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내년 이맘 때, 오늘 제게 고백한 어느 교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목사님, 2013년도 기도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 주셨어요. 참 감사해요”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안 해보고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묵상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은 격정만 하고 앉았 있지 말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 당뇨, 고혈압, 고지혈, 부인병 및 힘든 질병에서 빠르게 증상 개선시키는 청 한의원

대단히 놀랍고도 배아른 효능의 특수침술, 특수진맥

**이번주 강의: 당뇨, 고혈압의 합병증에서 빠르게 대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심각하고도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피순환이 잘 돌아서 무섭게 망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나이가 40살 정도인데 당뇨가 생긴지 2년정도인데도 눈이 안보여서 본원에서 치료 3개월 후 눈이 어느정도 보이게 됐고, 당뇨 수치가 어느정도 잡혀서 안도의 숨을 쉬지만 당뇨 합병증은 생각보다 무척 힘들고 고고통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본원에서는 자연의 요법으로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서 수치가 어느정도 정상성도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당뇨, 고혈압은 평생토록 관리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치는 안되지만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야 그리고 줄여서 합병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 한의원에서는 특수침술과 특수침술을 통해서 오래된 통증을 믿기 힘들정도로 빠르게 수 분 정도에도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약해진 장기의 균형을 도와주어 합병증 및 통증에서 벗어나게끔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도와드립니다. 올바른 가르침, 준비된 생활로 건강도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초기에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에만 의존하다 보니 안 보이거나 신장투석, 다리절단과사, 심장병, 뇌경색 중풍 치매등으로 고생하다 무척 힘들게 되는데 어느 정도 약을 줄이거나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은 빠른 증상개선으로는 좋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의 중요장기인 뇌, 눈, 심장, 신장 및 손, 발등 중요한 부분의 상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너무나 감사해 하였습니다.

예) 60대 후반의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배 부위의 통증으로 무스 큰 병이 아닌가 걱정하면서 내원한바 침 시술 후 3분도 안되어 그 통증이 사라지고 없어졌으니 남편도 지켜보면서 정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가 힘들고 상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너무나 감사해 하였습니다.

\*여기의 임상사례는 개개인의 증상, 병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통증이 사라졌다해도 다시 올 수 있으며 통증이 사라진 것이 완치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계속적 치료가 요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 고혈압은 완치가 없으며 평생동안 관리조절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청 한의원의 상상하기도 현실의 세계에서 믿기 어려운 빠른 효과의 특수침술은 과연 무엇인가...**

예) 70대 바라보는 LA인근에 사시는 김 선생은 허리통증으로 너무나 아파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본원에 와서 침을 맞은지 불과 2-3분도 채 안되어 그 즉시 그 괴로운 통증이 사라지니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신기하다,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 상황을 얘기하자 아무도 믿지않았다고 말하자 3주가 지난 이후에도 통증이 없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해하는 모습이었다.

예) 50대 남성으로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강 선생은 오십견으로 팔을 들거나 움직일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었고 한6개월 정도 고생으로 여러 병원에서 다 했으나 계속 아파서 본원에 와서 치료후 5분도 안되어 그 통증이 사라지고 자유자재로 그 즉시 움직이니 현실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믿기지 않아 했고 정말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 70대 할머니 엉덩이부터 땀기고 발끝까지 아파서 좌골신경통 및 알 수 없는 통증으로 2년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다 정말 남들이 2-3분 정도 후에 통증이 사라진다는 말을 듣고 그냥 방문 그런데 5분도 안되어 그 오래된 통증이 사라지니 이것은 상상으로 정말 이해가 안간다고 감탄하시며 뒤돌아가면서 감사해하는 모습이었다.

예) 젊은 학생이 6개월 정도 전에 다리를 다쳐서 심하게 아파서 병대를 잡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온갖치료를 했으나 큰 진전이 없어 통증을 호소하는바 침을 놓은지 5분도 안 되서 그 통증이 사라지고 자유자재로 무릎을 움직이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있나 말하면서 Amazing이란 말을 계속 연거푸 말하고 있었다.

**Coupon**  
**60% off** 1/31/2013까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 복부비만 프로그램

**특별 절호의 기회!**  
놀라운 당뇨 신선단2병 사면 1병 FREE  
**당뇨병의 희소식!!**



**왜 당뇨신선단이 좋은가?**

더 자세한 사항은 www.shinsundun.com을 참조  
24시간 주문전화 714.636.1412



# HEALTH & LIFE

## 지독한 죄책감의 굴레

죄책감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인디언들의 옛 이야기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쇠조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그 쇠조각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이때 느끼는 아픔이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맨 처음 나쁜 일을 할 때에는 그 죄책감이 상당히 크지만, 가면 갈수록 그 쇠조각의 날이 무더져서 죄책감을 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계속 저질러 온 범 죄자가 조금씩 조금씩 죄책감을 덜 느끼게 되고 양심이 무디어져서 나중에는 전혀 가책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의 우화같은 이 이야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어린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비난과 질책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깊고 깊은 죄책감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마음의 병을 앓게 됩니다. 죄책감의 문제는 심리적 병증을 더욱 악화시키고 사람을 더욱 강박적으로 만들거나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저는 끊임없이 죄책감이 일어나요. 어떤 땐 미칠 것 같이 자책하고 나 자신이 형편없게 보이고... 죽어버리면 이 감정에서 자유로울텐데요. 누구도 이해 못해요. 죄책감이 있으니까 사람들도 편하게 못보고...”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죄책감이 더 심해지거든요. 난 저렇게 못 살고 있는데 어떡하나, 하나님이나 벌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정말 심하게 들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도 안절부절 못하고 식은땀이 나요.”

“어렸을 때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질질치 못 하다고, 잘 하는 게 없다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 하는 게 없었어요. 항상 실수만 하고 그런데 부모님이 미더더라고요. 저를 계속 야단만 치니까... 미워하기 싫어나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런 설교 들으면 제가 미치겠어요. 그래야 한다는 건 알겠지만 죄책감 때문에 더 힘들어요.”

“항상 모든 일에 자책해요. 심하게 자책해요. 다 제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모두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해서 친구가 다 떠나고 애인도 떠나고... 죄책감을 벗어버릴 수가 없네요.”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의 문제에 지독하게 시달립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인들은 더욱 큰 죄책감

의 문제를 호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야 할 기독교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죄책감의 감정이 끈적끈적한 콜타르같이 발목부터 사람을 잠지게 하고, 마침내 숨이 막혀 죽을 때까지 차오르는 것을 봅니다. 마침내 진정한 사랑이나 참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죄책감은 사람의 생각을 앗아갑니다. 생명력을 파괴시키고 사랑을 상실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신앙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죄책감을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욱 내면으로 깊이 꺼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죄책감으로 인해 생명과 사랑이 고갈되고, 인생의 꿈 전체에 독이 퍼져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책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 가야 할 모든 에너지를 빼앗아 버릴 정도입니다. 마침내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져버립니다.

죄책감을 부추기는 수많은 언어와 태도와 눈빛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눈이 말하는 하나의 단어에도 심리적 기반이 연약한 사람은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탄은 더 깊은 죄책감을 끼여 숨 막히게 합니다.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면 차가운 눈빛 한 번에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전가하고 필요 이상으로 괴로워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죄책감은 수치심을 동반합니다. 수치심은 모든 정신병증의 원인이 될 만큼 무서운 요소입니다. 당신의 차가운 눈초리가 쓰러져 가는 동안에 누군가는 죄책감과 수치심의 병을 앓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눈빛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늘 따뜻한 사랑의 열기로 데워 두십시오.

죄책감이 심하면 하나님의 용서, 인간의 용서를 수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하면 곧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책감의 굴레에 매여 있으면 용서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욱 큰 불행으로 자신을 몰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기독교인의 달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듭나기 이전의 문제가 아직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 차원에



서의 치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오래 전에 형성된 잘못된 죄책감을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미 형성된 왜곡된 사고와 감정과 느낌이 너무 강력하게 영혼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책감을 가슴에 부여잡고 덜덜 떨며 매여 있지 말고 손을 펼치고 놓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완

전한 사랑이 샘물처럼 솟아나 당신의 메마른 영혼을 적실 것입니다. 당신의 죄책감을 부추기는 누군가의 절망적인 귓속말을 과감히 단절해야 합니다. 당신을 향한 비난의 메시지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소망의 메시지에 온 힘을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당신은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강선영 원장

### 생활한의학

#### 효소

근래 신문에 효소에 관한 광고가 참 많이 늘었습니다. 효소라는 것은 A에서 A'로 바뀔 때 중간에 꼭 들어가야 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밥을 먹었는데, 효소가 없으면 밥이 에너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은 밥은 그대로 남아서 찌꺼기, 노폐물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항상 효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적게 먹어도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은 적은 양으로도 에너지화가 잘 되는 것이겠지요. 많이 먹어도 헛살이 찌고 병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에너지로 바뀌지 않고, 나쁜 물질들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차를 비교할 때 연비를 보듯, 내 몸의 에너지효율은 얼마나 될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 족욕

족욕은 가급적이면 무릎 아래까지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를 각탕이라고도 하지요. 우리 몸의 대부분의 체중을 발이 부담하고, 혈액이 발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피곤해지면 발이 잘 붓습니다. 그래서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체온을 높여주기 위해서도 족욕을 해 주면 발이 따뜻해지고, 상대적으로 머리가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매일 저녁 족욕(각탕)하는 습관을 가지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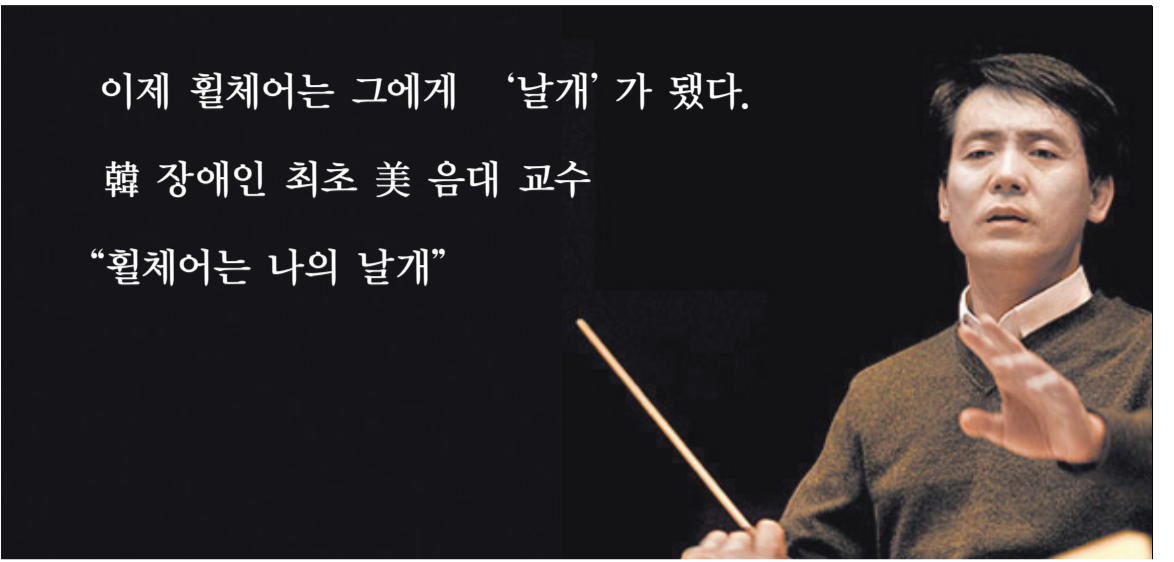
글=하랑한의원 박용환 원장

**WIN HYUNDAI at El Monte**

<p><b>VERACRUZ Limited 2012</b></p> <p>1 at this offer VIN# NCU187566</p> <p>MSRP.....\$35,625 Cash out of pocket...\$3,995 36 month lease 12x miles per year Competitive.....\$1,500 Other rebate.....\$1,500 Total drive off.....\$6,995</p> <p><b>Lease \$259</b> per month plus tax</p>	<p><b>SANTA FE SE AWD 2012</b></p> <p>1 at this offer VIN# NCG 137195</p> <p>MSRP.....\$32,565 Cash out of pocket...\$3,995 36 month lease 12x miles per year Competitive.....\$2,000 Other rebate.....\$1,000 Total drive off.....\$5,995</p> <p><b>Lease \$259</b> per month plus tax</p>	<p><b>SONATA GLS 2013</b></p> <p>1 at this offer VIN# NCH2663390</p> <p>Cash out of pocket...\$2,995 36 month lease 12x miles per year Total drive off.....\$4,995 Other rebates.....\$1,500 Competitive.....\$500</p> <p><b>Lease \$89</b> per month plus tax</p>	<p><b>ELANTRA GLS 2013</b></p> <p>5 at this offer</p> <p>MSRP.....\$19,015 Cash out of pocket...\$2,995 36 month lease 12x miles per year Total drive off.....\$3,995</p> <p><b>Lease \$79</b> per month plus tax</p>	
<p><b>한인담당 Alex Shin</b></p> <p>www.winhyundai.com</p> <p><b>El Monte</b></p>		<p>■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p> <p>■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환영</p> <p>■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p> <p>■ 최고의 가격을 보장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p> <p>Hyundai Holidays 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1월 13일까지입니다.</p> <p><b>Assurance</b></p> <p><b>Tel. 888.409.3002</b></p> <p>*Special APR based on 36 month financing.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must finance with HMF to qualify.</p> <p><b>America's Best Warranty*</b></p> <p><b>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b></p> <p>3462 N. Peck Road, El Monte, CA 91731</p>		



# COVER STORY



이제 휠체어는 그에게 ‘날개’가 됐다.  
**韓 장애인 최초 美 음대 교수**  
 “휠체어는 나의 날개”

## 새해 새 희망 노래하는

# 바이올리니스트 겸 마에스트로 차인홍

한국 장애인 최초로 미국 음대 교수에 임용된 바이올리니스트 겸 마에스트로 차인홍 교수(54·오하이오 주립대)는 6·25 전쟁 직후인 1958년 태어나 두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재활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처럼 바이올린을 만난다.

이후 장애인 친구들과 ‘베데스다 4중주단’을 만들어 매일 10여시간씩 연습하면서 연주회를 다녔고, 감히 생각도 못하던 미국 유학을 함께 떠난다. 가난과 장애, 초등학교 졸업장 뿐이던 그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악기’를 건네신 것.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 장애가 ‘장애물’ 되지 않는 미국에서,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펼치기 시작했다. 자신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그는 미국 여러 대학에서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바이올린 교수 겸 대학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까지 올랐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고후 12:10)”는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는 ‘노래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차마에(스트로)’는 하나님을 ‘어메이징 마에스트로’라 부른다. 차 교수의 이러한 사연은 KBS TV 등에 여러 차례 방영됐고, 최근에는 <휠체어는 나의 날개(마음과생각)>라는 책으로도 출판됐다.

“그분은 내 인생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시어 나를 바이올리니스트로 앉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심벌즈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연주하면서 소리를 낼 때 서로의 소리를 돕도록 인도하셨고, 각자 그분의 지휘를 바라보며 그분과 한 마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내가, 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연주하다 보면 각각 가장 좋은 소리를 내면서도, 서로의 소리를 가장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완벽한 능력도 있지만 아름다운 성품도 함께 지니신 어메이징 마에스트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라 하시는 듯 합니다.” 여전히 ‘날개’를 단 채, 잠시 한국에 내려온 차인홍 교수 이야기다.

**-어떻게 휠체어를 ‘날개’라고 고백하실 수 있나요. 교수의 삶에서 ‘장애’란 무엇이었나요.**

“어렸을 땐 물론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장애’였죠. 깊이 고민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주눅이 들어 있었던 기억은 납니다. 아이들이 놀리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굳이 슬픔으로까지 느끼진 못했어요. 대신 사춘기 들어 좀 심각해졌죠. 하지만 성격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좌절하거나 비뚤어진 길로 가진 않았어요. 그것이 제겐 축복이었습다. 그저 잘 받아들이고 할까요? 장애를 가진 주위 친구들 중에선 비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물론 아픔이 많았지만 나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웃음).

청년기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 뿐이었어요. 젊음은 곧 희망인데, 전 그런 자신감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연애나 결혼 같은 이성 문제는 고민조차 하지 않았어요. 생각하는 자체가 사치였죠.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할 시기쯤 유학을 갔는데, 그때부터 ‘장애는 불편할 뿐, 무능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만 열심히 하면 뭐든 가능하다’는 눈을 떴다고 할까요? 미국에 가서야 제가 가진 잠재력이나 능력을 펼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큰 희망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뛰어난 연주자도 아니었고, 음악가로서의 길도 사실 암담했지만, 장애 때문에 포기하거나 스스로 제 길을 막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제가 가진 장애가 누구에게나 있는 아픔이나 단점 ‘핸디캡’일 뿐이에요. 견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던 모습이 굉장히 어색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건 강한 사람들 많지만, 누구나 단점이 있잖아요.

오히려 저보다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도 있고, 저보다 못한 환경 가진 이들도 있고, 자신의 단점 때문에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약함에 비하면 견지 못하는 것은 별 거 아니죠. 이만큼까지 온 제 삶을 보면서 더 그렇게 느낍니다.”

**-장애인들의 ‘롤 모델’이 되셨습니까.**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하고 부족함 없이 사는 듯한 젊은이들에게도요. 제 스토리를 알게 되면, 누구든 지금 각자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상상도 못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돌아보면 저는 누구보다 돈이 없었지만, 누구보다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아왔어요. 모두 주변의 도움과 관심 덕분이었죠.

단 한 가지 제가 스스로 자부할 게 있다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점입니다. 물론 후회스러운 날도 많았지만, 내일이 막막해도 오늘을 성실히 살아야겠다는 나름의 신념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겐 소중합니다.

그러한 의지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지도 못했고 만날 수도 없었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지금까지 오는 밑바탕이 됐어요.”

**-그래도 살면서 힘들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았을텐데,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제가 바보는 아니었지만, 힘들고

막막한 순간마다 ‘이건 아닌데...’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막연하지만 뭔가 희망적인 미래가 있을 것 같은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신앙적 바탕에서 나온 생각도 아니었지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듯한 그런 마인드 때문에 크게 좌절하진 않았어요.”

**-원래 성격이신가요.**

“타고난 성격도 있었겠지만, 누군가의 사랑과 보살핌이 늘 있었던 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보살펴 주셨다고 믿어요.

사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만한 여유나 신앙의 깊이도 없었어요. 하루하루 살기에도 바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신앙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 하는 원망 비슷한 것도 많이 했지만, 신앙생활을 계속 했음에도 ‘왜 하필 나만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장애인으로) 만드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앙적으로 철도 들고 뭔가를 어느 정도 이루고 나니, 제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 뜻이 있었고 그래서 더욱 세우주셨구나 깨달았어요.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질 틈이 없었던 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때문이었죠. 당시엔 몰랐지만, 특히 목사님들이나 교회 친구들, 믿든 믿지 않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바이올린을 처음 접할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네요.**

“재활원에 있던 제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신 분이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죠. 열악하고 형편없는 곳에서 밑바닥 생활을 할 때 강민자 선생님이라는 분이 자원봉사를 하러 오셔서 바이올린을 소개해 주셨어요.

봉사하러 오시면 불쌍하다며 먹을 것을 주고 가시는 게 보통인데, 강 선생님은 4년간 엄청난 열정과 사랑으로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음악을 하게 된 시작이었죠. 암담했던 밑바닥 인생에 꿈과 용기를, 막연하게나마 희망의 빛줄기를 비춰 주셨죠. 지금도 찾아뵙는 양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미국 유학을 보내주신 분은 신동욱 서울대 비올라 교수님이셨어요. 대전 재활원에서 또래 친구들과 ‘베데스다 현악 4중주단’으로 활동했는데, 하루 10시간 넘게 연습을 하면서도 막막하고 괴로웠어요. 20대가 됐는데도 가진 건 초등학교 졸업장 뿐이라 일반 음대생에 비해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서울소아마비협회 후원으로 서울의 좋은 선생님들로부터 레슨도 받고 기숙시설도 제공받

았어요. 그렇게 만난 신 교수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검정고시를 마친지 한 달만에 장학금을 받고 신시내티 음대로 갔고, 생활비는 아산재단에서 후원해 주셨어요.

집사람(조성은 씨) 도움도 컸어요.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도 미국으로 건너와 줬죠. 한국에서부터 계속 도움을 주셨고, 베데스다 4중주단에서 경험한 하나님 은혜 때문에 목회를 시작하신 김태경 목사님도 계시고... 제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부모와 가족들에게 받아야 할 이상의 사랑을 주변에서 주셨어요.”

**-바이올리니스트에서 마에스트로가 되셨는데, 계기가 있었나요.**

“지휘자가 되고 싶진 않았지만, 지휘라는 걸 하고는 싶었어요(웃음). 저와 전혀 다른 세계라 생각했지만, 막연하게나마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서서 하는 것보다는 자리라, 신체적 조건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 보였죠. 자신감도 없었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도 이상하게 공부는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신청할 때 지휘를 배우겠다고 했어요. 저를 데려가려는 지도 교수님이 바이올린과 지휘를 같이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길을 열어 주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도전도 가능했습니다.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어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나라거든요. 저도 이제 마음이 많이 열렸지만, 한국에서 지휘하려면 저도 모르게 위축이 돼요. 한국에서 받은 상처나 열등감 같은 게 아직 남아있나 봐요.

특히 장애를 가진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장애가 있어도 그와 관계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미국은 ‘기회의 나라’입니다.”

**-롤 모델로 삼은 인물이 있으셨나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로 손꼽히는 이스라엘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펠만(Itzhak Perlman)입니다. 그분의 음반을 많이 들었지만, 심한 소아마비가 있었던 건 한참 뒤에 알았어요. 휠체어만 타지 않을 뿐이지 보조기를 끼고, 앉아서 연주할 때는 목발을 내려놓고 하시더라고요. 실력도 뛰어난데, 나름대로 큰 희망을 주셨어요.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희망까지 아니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이들을 ‘장애인’으로서가 아니라 ‘음악가’로만 인정한다는 메시지가 충격적이었죠. 오로지 ‘능력’만으로 활동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이면서도 훌륭하다’고 부각시키잖아요. 미국은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펠만에게 공개 레슨을 여섯 차례

받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조차 ‘너 장애인이니까 더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비슷한 조건이라 내심 기대도 했는데... (웃음). 오로지 음악인으로 대하는 거예요. 미국에선 이번 책 제목에 ‘휠체어’를 꼭 넣어야 하냐고 해요.

저도 예전에는 장애가 부각되는 게 싫어 망설였지만, 이제는 저를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가 역할이 있기 때문에 ‘휠체어’가 부각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죠. 부끄럽게 생각하고, 동정심을 유발한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은 제가 넘어섰다고 봅니다. ‘이제는 휠체어가 부정적이지 않거나 긍정적 의미라는 건가’라고 물으신다면, 진짜 그래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즐겨 연주하시는 찬양이 있으신지요.**

“찬양은 물론 ‘어메이징 그레이스(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의미도 좋지만 편곡해서 연주하기도 좋아요. 또 ‘오 신실하신 주’는 간단하지만 멜로디 자체에도 깊이가 있고, 삶에 신실하게 개입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내용이라 좋아합니다.

성경구절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개역한글판)’입니다. 영어가 더 멋있어요. 이 구절은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들 약함이 있잖아요? 그때가 강함을 인정한다면, 큰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차인홍 교수는 이제 받았던 도움을 나눠주려 한다. 비영리단체 ‘차인홍 장학재단’을 만들어 장애를 가진 국내외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는 것. 이번 <휠체어는 나의 날개> 인세는 여기에 쏟아부를 계획이다.

“기본적으로는 겸손하게 제가 받은 것을 갚아야겠다는 마음입니다. 돕겠다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많은 분들께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 일이 시작되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보람과 힘도 생기겠지요. 이 일을 하면서는 대가나 고마움을 기대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일일이 표현하지 못했거든요. 도움은 도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얼마가 됐든 깨끗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죠.”

**-마지막으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힘들었던 때를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에 충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들어도 지금이 전부 아니라라는 걸로 위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대용 기자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판매 김기형

**Excel Legal Center(엑셀법률센터)**

- 영주권, 시민권 신청
- 주식회사,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
- 혼인, 이혼, E2 투자
- 민사, 퇴거(Eviction), 파산
-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 소액재판(small court claim)

☎ 213-365-6622 (67+ 사무스베일러앤드대학원 학생빌딩)  
520 S. La Fayette park pl. #501 Los Angeles CA 90057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빙베어 농축 효염소**

상왕 효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효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효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 효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에 의한 피해 재산, 부동산, 손실분쟁

입주자분쟁(소송/방어서류)

접근금지 명령/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급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 형법 정부상대 문제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식당 의자 천갈이 노래방**

지압다이 교회장의자 식당부스

오랜 기술과 신용으로 영업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업용/가정용 가구수리

스파 (714)222-9792 562)943-7101 교회

16513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3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Living water **IOREX USA** 세계 최첨단 이온화 시스템

살아 숨쉬는 물 이오렉스

- 미국 FDA세계 최초 승인
- 러시아 GOST마크 획득(18개월 정밀시험)
- 높고 중금속 제거 및 살균작용
- 수질안전, 이온 활성화, 경제성 확보
- 아토피, 여드름, 주부습진 등 피부질환 개선
- 반영구적 집안, 밖 100% 사용
- 산업, 상수도, 빌딩, 농장, 아파트, 주택 설치
- 건축, 부동산업자 환영

562.405.9987 www.iorexusa.com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튜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동산한의원 3주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부/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인디안 알로에 베라** 신제품 알로에-에타글루코산 분쇄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영양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당뇨, 간기능 강화, 화상피부에 효능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방지 보습기능 유아들의 민감성 피부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홈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587.3498

**유익중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교통사고
- 즉시 효과보는 침
- 식생활 개선으로 치료

원장 유익중 Yoo, Ik Jong L.A.C., O.M.D.

323)735-0252 1045 S. 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올림픽과 놀란드 신관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Value Windows & Doors

특별세일 \$499

햇빛차단 Low-E3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스마트 월드** FUJITA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완전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살리핀! 자동차 핸들 커버 \$300 (정액) 음이온-양극성 발생

졸음 운전 때문에 교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로테오 갤럭시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 (213) 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외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 북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추천

####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김장환 | 나침반 | 3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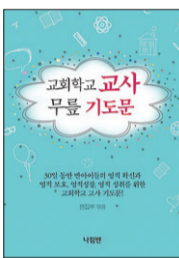
아베스처럼 복에 복을 받고자 한다면, 매일 5분 묵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매일 묵상할 주제를 짧막한 단어로 표현한 제목으로 달았다. 또 고전 속 인물부터 이슈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면서 흥미를 끄는데, 이는 단순한 감동과 교훈을 넘어 하루를 살아가는 데 큰 지혜가 될 것이다.



#### 교회학교 교사 무릎 기도문

나침반편집부 | 나침반 | 144쪽

이 책은 교회학교 교사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사명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침반 편집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기도로 영혼을 세우는 교사가 되라"고 당부했다.



####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소서

최성규 | 나침반 | 400쪽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이 신앙이라면, 부모님에 대한 성실함은 효심이고, 나라에 대한 성실한 것이 애국심이다. 저자는 그 중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성격적 효심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매일 기도를 통해 그 분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 생각해 책을 저술했다.



#### 인생을 바꿔주는 것

하순희 | 나침반 | 192쪽

누구나 인생을 끝까지 아름답게 살고, 삶의 끝을 두려움 없이 맞이 하길 원한다. "내게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린 과연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런 관점에서 스스로 체협하고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이야기로 풀어냈다.



## REVIEW

### 2013년에는 '큐티하자'... 도움이 될 만한 신간들

〈지저스 콜링〉, 〈유영모 함석헌의 생각 365〉 등

새해를 맞아 매일 묵상이 가능하도록 1년 단위로 기획된 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달 소개된 존 스토틀 목사의 〈나의 사랑하는 책(IVP)〉에 이어, 지난 2004년 출간돼 미국에서 8년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사라 영의 〈지저스 콜링(생명의말씀사)〉과 〈유영모 함석헌의 생각 365(홍성사)〉 등이 출간된 것.

〈지저스 콜링〉은 마치 예수님께서 출근이나 등교를 앞두고 문을 나서려는 독자들에게 당부하는 듯한 말투로 구성돼 있다. '대화식 큐티'로 구성됐다는 이 책은 짧은 성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짧은 생각이나 실천거리를 던져준다.

3대째 일본 선교사인 남편과 함께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상담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금은 호주에서 일본인을 위한 교회 개척과 상담 사역을 하고 있는 저자 사라 영은 현대판 잔느 귀용으로 불리는 스테디

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저자는 건강 악화 등 힘겨운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간구했고,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경험을 〈지저스 콜링〉에 담았다.

〈유영모 함석헌의 생각 365〉는 다석(多夕) 유영모와 씨알 함석헌 사상의 권위자인 박재순 씨알사상연구소장이 집필했다. 지난 2008년, 아시아 권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철학대회에서 유영모와 함석헌은 특별분과가 개설되며 '우리나라의 철학자'로 알려졌고, 이후 씨알재단이 설립되는 등 이들의 사상은 본격 연구가 시작됐다. 둘은 모두 기독교의 한국화에 힘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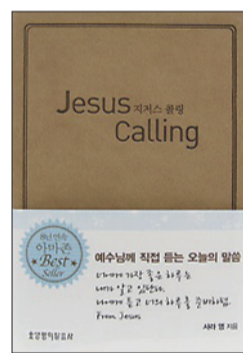
이 묵상집은 유영모의 〈다석일지〉와 〈다석강의〉, 함석헌의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와 〈뜻으로 본 한국역사〉 등 두 철학자의 저작에서 발췌한 글과 박재순 소장의 해설로 이뤄져 있다. 박 소장은 "유영모, 함석헌의 깊

은 정신과 사상을 함께 나누고 싶어 이 책을 썼다"며 "두 분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몸과 맘이 곧고 힘 있어지고 지성과 생각이 깊고 맑아지며 열이 솟아오르는 느낌을 갖는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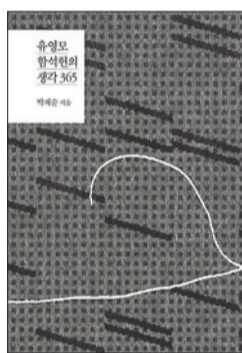
다석 유영모(1890-1981)는 동서양 철학과 기독교 사상 등에 능통한 사상가이자 철학자로 16세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나 1912년 톨스토이를 연구하면서 무교회주의를 신봉했다.

기독교 한국화와 함께 우리말·우리 글로 독창적 사유를 즐겼으며, 1940년대부터는 하루 한 끼만 먹는 생활을 했다. 오산학교에서 유영모의 제자가 된 함석헌(1901-1989)은 1924년 일본 유학 중 우치무라 간조의 서서연구에 깊은 영향을 받고, 1927년 〈서서조선〉 창간에 참여했다. 해방 후에는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다 투옥되기도 했으며, 노벨평화상 후보에도 올랐다.

이밖에 '큐티' 열풍에 한몫 했던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의 〈날마다 큐



지저스 콜링  
사라 영 | 생명의말씀사 | 376쪽



유영모 함석헌의 생각 365  
박재순 | 홍성사 | 408쪽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양장 한정판)  
김양재 | 홍성사 | 248쪽

티하는 여자(홍성사)도 출간 10주년, 10만부 기념 '선물용 양장 한정판'이 나왔다.

집필 당시 집사로서 큐티 사역을 하고 있던 저자는 책이 나올 즈음에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가 됐으며, 지금은 성도 7천여명에 이르는 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여러 '이대웅 기자

큐티 가이드북'들이 있지만, 이 책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돼 돋보인다. 주님과과의 소통 방법을 몰랐던 저자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과정들이 기록돼 있으며, 큐티를 차근 차근 익힐 수도 있다.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긴급속보**

**미국 무제한 통화**

**\$9.99/월**

**비싼 집전화는 가라!**

**2013년**

**집전화 요금의 혁명**

지금 아이토크비비로 바꾸면

**無** 계약기간도 없다  
개통비도 없다

**+** 최대 4개월\*  
쓰면 쓸수록  
혜택이 늘어난다!

행사기간: 2013년 1월 15일 까지

**패밀리 알뜰 플랜**

미국 최저가 **\$4.99/월**

- 수신 무제한
- 미국 로컬, 장거리 2센트
- 기존 전화번호 이전 가능

**글로벌 플랜**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24.99/월**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발신자번호 표시, 착신전환 기능 제공

**글로벌 플러스 플랜**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34.99/월**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www.Korea.iTalkBB.com**

LA 직영점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304호)

**213.559.7557**

**1.800.872.2902**

아·이·토·크·비·비 iTalkBB **30일** 품질의 자신! 환불 보장! 사용해보고 결정하세요!

\* 최대 4개월 무료: 신규 가입자에 한해 매 5개월 사용시마다 다음달 1개월 무료, 총 4회에 걸쳐 적용됩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책임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 에 있습니다. 연방 민생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라벨링은 \$10을 선납금(Deposit)을 받습니다. 무료 평가서비스 없이도 90일 동안 7일 동안 사용 가능한 경우, 소액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모션 및 적용규정(Applicable Regulatory Compliance Fees and Charges)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내 서비스 중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50-\$99)과 프로모션 기간 동안 혜택 받으신 금액을 반환해 드립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 중은 지역별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해외 영토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서비스 이용 프로토콜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Korea.iTalkBB.com 을 참조하세요.  
다국어 상담센터 1-800-872-2902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 문의 **1.800.875.8318**

365일 오전 6시~오후 10시30분(PST)



WWW.PHHYUNDAI.COM

# SUPER STORE

## 푸엔테힐스 현대

### 2013 EQUUS Signature



**\$559** 48Month leas /12k mile/ T.D.O 5,999  
 MSRP \$60,150  
 PH HYUNDAI D/C \$3,582 LEASE CASH \$1,500  
 COMP. REBATE \$1,0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TAX (STK. 066542)

### 2013 SONATA GLS



**\$92** 48Month leas /12k mile/ T.D.O 5,999  
 MSRP \$22,175  
 PH HYUNDAI D/C \$684 LEASE CASH \$1,500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TAX (STK. 589865)

### 2013 ELANTRA GLS



**\$55** 36Month leas /12k mile/ T.D.O 5,999  
 MSRP \$19,015 PH HYUNDAI D/C \$427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TAX (STK. 248683)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스티브 장 제니 김 찰리 정  
 626.513.4006 626.513.4683 626.513.4981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